KALPAK

www.kalpak.co.kr

한진관광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 빌딩 6층 KALPAK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TEL 02-726-5800 FAX 02-771-9084

KALPAK CLASS

2019. SPRING. vol 59

Greece / Travel with a theme

KALPAK CLASS

SEE THE UNSEEN

2019 SPRING

—

SPECIAL THEME

GREECE IN SPARKLE

—

CITYSCAPE

LE VOYAGE À NANTE

—

STYLE

TRAVEL BAG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4월 12일 보스턴 신규 취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CONTENTS

PROLOGUE

06
EDITOR'S LETTER

08
CITYSCAPE
낭트의 화려한 변신

TRAVEL & CHALLENGE

12
CULINARY TOUR
세계 애프터눈티 기행

16
WHAT'S NEW?
축제로 이끄는 여행들

20
SPECIAL
GREECE IN SPARKLE
황금빛 아테네부터 푸른 산토리니까지, 화려한 팔레트의 그리스를 만나다

64
EXPERIENCE
시키시마의 四季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787.koreanair.com

드림라이너 787
꿈의 비행을 만나보세요.

KOREAN AIR

꿈의비행 787

대한항공에서 만나는
드림라이너787

대한항공에서 펼쳐지는 드림라이너787 꿈의 비행.
미래의 기술이 만들어낸 편안함과 새로운 기내환경을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IFE & CULTURE

68
STYLE
진화하는 트래블백

74
WORLD EXCLUSIVE
두바이 인더 스카이

72
ZOOM
오드리햅번, 티파니, 그리고 뉴욕

EPILOGUE & KALPAK COLLECTION

78
TRAVELOGUE
작가 최갑수의 트래블로그

83
KALPAK COLLECTION
2019 KALPAK 봄 상품 안내

KALPAK, SEE THE UNSEEN
Spring 2019 Vol.59 / Quarterly Magazine

KALPAK CLASS was registered as a quarterly magazine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n July 11, 2005.
Registration No. Seoul Jung, Ba 00198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contents of this magazine may be reproduc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HanJin Travel Service Co.,Ltd. & HanaroAdcom.
Opinions in this magazine belong to the writers and not necessarily endorsed by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 HanaroAdcom.

KALPAK CLASS is published quarterly by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Tel. +82.2.726.5800 Fax. +82.2.771.9084 www.kalpak.co.kr

Publisher Park In-chai
Editorial Board Ahn Kyo-wook, Jung In-sook, Kim Jung-ho, Jung Yeo-jin

Editorial, Creative & Printing Division / HanaroAdcom
5th Floor, Sando Bldg., 8, Dosan-daero 33-gil, Gangnam-gu, Seoul, Korea 06026
Tel. +82.2.3443.8005 Fax. +82.2.3443.0021 www.hanaroad.com

Managing Director Seol Myoung-sung
Editor in Chief Lim Ji-young
Editor Lee Hyun-hwa, Kim Hong-joo
Art Director Lee Yun-jung
Photographer Lee Suh-youn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CROATIA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 지중해를 건너 또 다른 크로아티아를 만나다

대한항공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주 3회 신규 취항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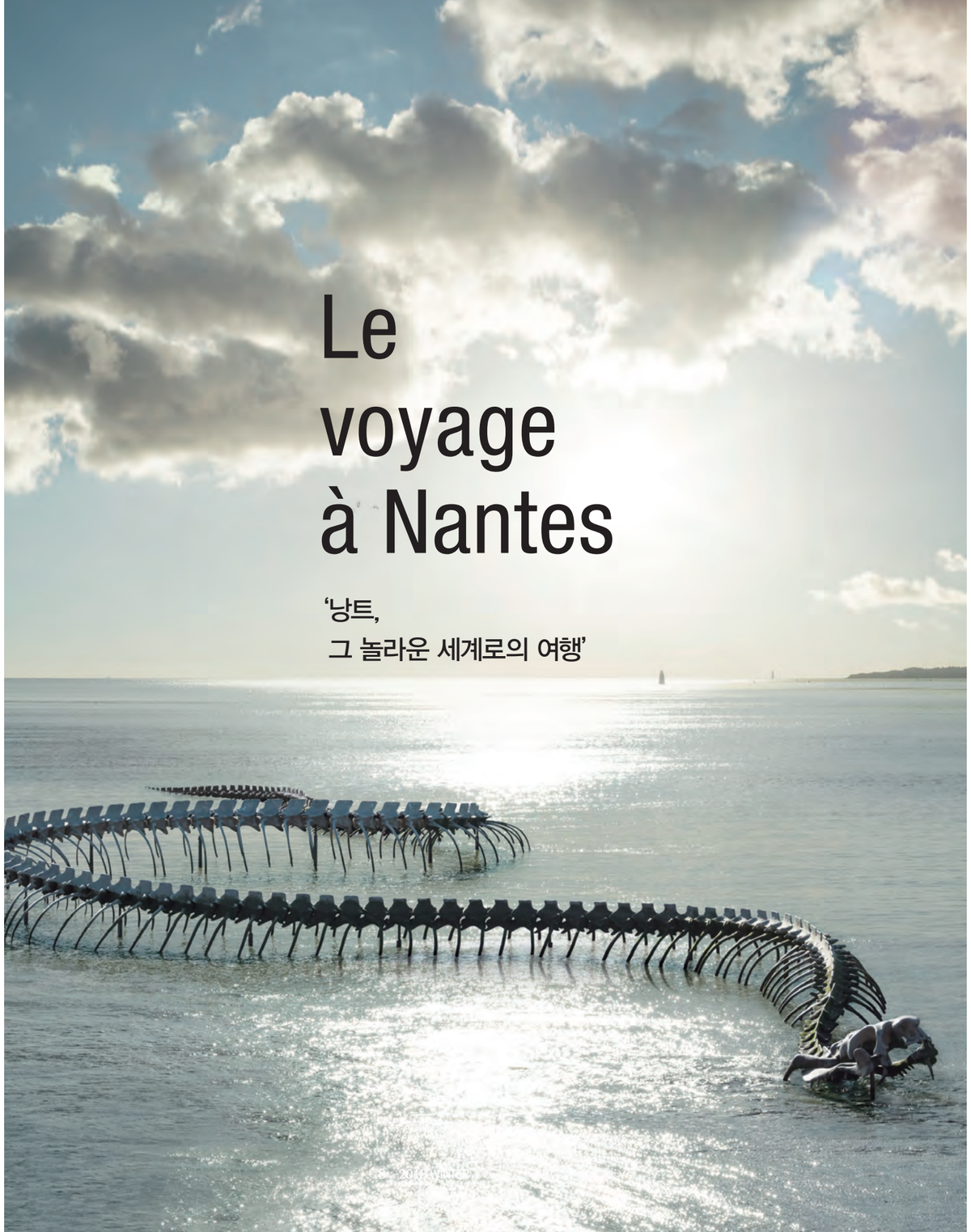
EDITOR'S LETTER

I hope for nothing,
I fear nothing,
I am free

더 가까이 보기 위해 한 발 물러섭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볼 일입니다. 꼭대기에 서면 언덕과 잡목에 가려 보이지 않던 길이 지도처럼 훤히 드러납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자의 심정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복잡함과 어수선함에서 벗어나려면 아득히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을 지킨 아크로폴리스에 올라 파르테논의 석주(石柱)들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 위에 그리스 역사의 상징적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는 고대 아테네의 영광을 후세에 전하는 금자탑이요, 운명에 끝내 굴복하지 않은 그리스인들의 용기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갈망하며 전 세계를 방랑했습니다. 그의 작품들도 조르바처럼 자유를 갈망하는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된 그의 고향 크레타 섬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Den elpizo tipota, Den forumai tipota, Eimai eleftheros)

하늘을 향해 우뚝 고개를 치켜든 파르테논 신전처럼, 죽어서도 자유를 갈구한 카잔차키스처럼, 모두 자유롭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래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쓰여진다면 그 배경은 마땅히 브르고뉴의 낭트가 되지 않을까? 도시 전체가 즐거운 놀이터,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곳, 지금 프랑스 낭트에 주목해야 할 때다.

에디터 임지영 / **자료제공** 프랑스관광청

역사의 더께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다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남들이 모두 가는 곳을 가는 대신, 나만의 '보물섬'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그 가치에 비해 덜 알려졌으면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자랑하는 브르타뉴의 역사 수도 낭트(Nantes)는 분명 유럽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행지 중 하나다. 서부에 위치한 루아르아틀랑티크 주의 주도이자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인 낭트는 원래 평범한 해양도시이자 상업도시였다. 지극히 '프랑스적'이었던 이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건 수년 간에 걸친 최근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였다. 기존의 유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움을 더하는 과정을 거치며, 낭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매혹적인 역사적 유산에 현대식 위트, 여기에 예술, 미식, 건축, 자연 유산까지, 그동안 우리가 낯선 여로를 거닐며 추구해온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 펼쳐놓은 완벽한 패키지로 변신한 것이다.

낭트에 등장한 새로운 아이콘들

기존에 낭트라는 도시를 형용하곤 했던 브르타뉴 공의 성이나 샤르트르 대성당보다 더 높은 성 베드로-성 바울 대성당 같은 고전 건축물에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민 것은 레 마쉰 드 릴(Les Machines de l'ile)이라 불리는 '공상과학기계의 섬'이다.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펼쳐지는 생경한 풍경은 다분히 압도적이다. 낭트 출신의 공상과학 작가인 쥘 베른에 오마주를 바치는 이 섬은 아이들은 물론, 아직 꿈을 잃지 않은 어른들에게도 훌륭한 놀이터가 되어준다. 새롭게 단장한 낭트 미술관도 인상적이다. 앵그르, 쿠르베, 샤갈, 칸딘스키, 피카소 등 걸출한 화가들이 남긴 수백 점의 명화를 침묵이 지배하는 더 없이 웅장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낭트가 예전에 왕성한 해상활동을 했던 항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앤틸리스(Antilles) 강둑은 루아르 강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낭만적인 산책길로 변모했다. 강둑에 에스튜아르 비엔날레의 걸작품 '레자노(The Rings)'가 설치되어 즐거움을 더해준다.

Must-Try in Nante 낭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18세기 귀족의 저택

낭트의 해상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18~19세기에 지어진 고전적인 건축물. 지금은 박물관, 카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시기 브르타뉴 귀족들의 생활상을 세세히 엿볼 수 있다.

브르타뉴공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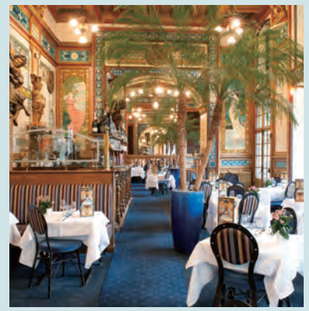
브르타뉴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 요새화된 외곽과 르네상스풍 내부의 대비가 독특한 성이다. 외부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성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와이너리 방문 & 와인 시음

이름 자체가 럭셔리의 대명사인 '르와르(Loire) 밸리'는 프랑스에서도 고급 와인 원산지로 꼽힌다. 르와르 밸리의 와이너리를 방문하면 최고의 와인 체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레 마쉰 드릴 (Les Machines de l'île)

거대한 금속 코끼리와 벌레, 뱀이 잊지 못할 시각 체험을 선사해준다. 섬 전체가 공상과학작가 쥘 베른에 바치는 오마주로, 단언컨대 유럽에서 이보다 더 이색적인 풍경은 없다.



레스토랑 라 시갈 (La Cigale)

음식 하나도 품위와 예절을 중시했던 낭트의 상징적인 레스토랑. 그라슬랑(Graslin) 광장에 위치한 브라세리로, 유럽 최고의 커피와 초콜릿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

르와르강 크루즈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명소들을 배를 타고 둘러보는 크루즈. 명소 중에는 르와르 강에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반쯤 기운 저택이 포함되어 놀라움을 더해준다.

올 봄, 가장 향긋한 파티

IT`S TEA TIME

'느긋하게 즐기는 티타임과 바꿔야 될 만큼 좋은 건 세상에 많지 않다'. 일찍이 미국의 동화작가 타샤 튜더는 티타임의 미덕을 그렇게 예찬했다. 봄날 오후를 더욱 따사롭게 만들어줄 세계 곳곳의 애프터눈 티 세트들.

에디터 임지영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그래넘' _ 서울

Afternoon Quality Tea Time by Granum

향긋 달콤한 캐러멜라이즈 사과와 메이플 시럽이 올라간 수수 팬케이크, 달콤한 곶감과 짭짤한 프로슈토의 조화가 느껴지는 곶감 브루스게타. 반얀트리 클럽 서울에서는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달콤한 디저트들의 향연을 차나 커피, 혹은 스파클링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시원한 그래넘의 통창 너머로는 푸릇푸릇 연둣빛 봄이 내려앉은 남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0
+02 2250 8000
http://www.banyantreeclub.com/kr/

사보이 호텔 '탬즈 포이어' _ 런던

Afternoon Tea by Thames Foyer

사보이 호텔의 탬즈 포이어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신다는 건 런던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호텔에서 최고의 딜라이트를 맛보는 것이다. 차 세트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핑거 샌드위치, 클로티드 크림과 잼을 곁들인 홈메이드 스콘, 시즈널 케이크, 패스트리는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한다. 아름다운 글라스 돔에 스며드는 자연 채광에 피아노 연주까지,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티 타임을 즐길 수 있다.

The Savoy, The Strand, WC2R 0EZ London
+44 (0)20 7420 2111
www.thesavoylondon.com

그란데 브레타뉴 '윈터 가든' _ 아테네

Afternoon High Tea by Winter Garden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티타임을 즐기고 싶은 이에게 아테네의 그란데 브레타뉴 윈터가든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이름은 비록 윈터가든이지만, 카페는 플라워 데코가 연출하는 봄 기운으로 가득하다. 차와 함께 작은 샌드위치, 케이크, 다양한 쿠키류가 제공되는 '애프터눈 하이티(Afternoon High Tea)'는 이름처럼 오후의 낭만을 '최고조'로 만끽하게 해준다.

1, Vasileos Georgiou street Syntagma Square, Athens, Greece
+30 2103330000
www.gbrestaurants.gr

오설록 '오설록 1979' _ 서울

오설록 애프터눈 티세트 by 오설록 1979

거대한 샹들리에를 연상하게 하는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 건물 1층에 자리한 '오설록 1979'는 색다른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트레이와 다구 하나까지 유명 도예 작가의 작품을 사용한 오설록 애프터눈 티세트는 오설록 차와 다양한 티 푸드로 구성되어 있다. 수제꽃 정과와 오설록 계란핑거푸드 등 달콤한 디저트를 전문 티 소믈리에의 '마스터즈 티 차우림 서비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빌딩 1F
+070 5172 1171
http://www.osulloc.com/kr/ko/about/since1979

호텔 브리스톨 '브리스톨 라운지' _ 비엔나

THE Afternoon Tea by Bristol Lounge

비엔나 오페라극장 맞은 편에 위치한 브리스톨 라운지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애프터눈티 플레이스다. 홈메이드 살구, 딸기잼과 함께 제공되는 스콘, 라즈베리 치즈케이크와 오렌지초콜릿 브라우니 등 미식가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채워져 있다. 100% 비건 재료로만 선보이는 비건 애프터눈티 세트도 있으니 참고할 것. 음악과 예술의 도시 비엔나에서의 감흥을 한껏 돋워준다.

Hotel Bristol Kärntner Ring 1, Wien, Austria
+43 151516553
https://www.bristol-lounge.at

AFTERNOON TEA STORY

사교모임에서 시작된 애프터눈 티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시집을 온 캐서린 공주로부터 시작된 애프터눈 티는 왕실과 귀족들의 사교 모임을 중심으로 점차 하나의 '문화'로 확대되었다. 애프터눈 티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핑거 푸드가 티 푸드(tea food)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인 영국식은 홍차와 우유, 샌드위치, 스콘, 우유를 가열해 얻은 클로티드 크림과 잼, 케이크, 비스킷, 타르트, 초콜릿 등으로 구성된다.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청되는 것은 우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난 휴식을 디자인해!

살다 보면 여러가지 변화가 물결처럼 밀려들고 바쁜 일상에 조금씩 지쳐가지.
그렇다고 여행까지 그렇게 가야 해? 여행은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시간이야.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공간, 내 시간이 될 수 있게 내가 만들어갈 거야.

Muse, 난 내가 누릴 휴식을 디자인해!

여행이 드라마가 되는 Muse

-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녀들의 〈파리 6일 / 파리&노르망디 8일〉
- 안녕, 체코의 모든 순간 〈체코 7일〉
- Hola, Espana!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스페인 8일〉
- 알로하, 행복의 섬에서 쓰는 일기 〈하와이 6일〉
- 행복한 소녀가 되어 〈방콕 5일〉
- 눈부신 햇살처럼 빛나는 별빛처럼 〈푸껫 5일〉
- 신들의 섬에서 누리는 천상의 휴식 〈발리 5일〉
- 도시의 완성 〈싱가포르 5일〉
- 반짝이는 것이 좋아 〈홍콩 3일〉
- 달콤 상큼한 설렘 〈오사카 3일〉
- 찬란한 시간 속으로 〈도쿄 3일〉

한진관광 여행상담 Muse 프랑스, 체코, 스페인 02. 726. 5533~4 / Muse 하와이, 방콕, 푸껫, 발리, 싱가포르, 홍콩, 오사카, 도쿄 02. 726. 5535~6

Muse
Inspired by KALPAK

Designed to Seduce.

The new CLS.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 - 벤츠 공식 전시장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로 (02)575-7500 강북 (02)6678-7500 강서 목동 (02)6355-0000 동대문 (02)2215-2233 마포 (02)6010-9000 방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서초 청계 (02)6007-0100 송파 (02)3434-4000 영등포 (02)6123-1400 용산 (02)709-3800 중랑 (02)2208-0020 청담 (02)6421-1100 한남 (02)6328-7700 경기: 고양 (02)381-9999 구리 (031)579-0900 부천 (032)713-4500 분당 서현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86-6000 수원 (031)740-5000 스타필드 하남 (031)8072-8900 안성 (031)8094-6000 안양 평촌 (031)689-8900 용인 수지 (031)5183-9200 의정부 (031)878-3333 일산 (031)907-7777 파주 (031)912-9000 인천: 인천 (032)770-8800 인천 송도 (032)860-3300 부산: 감전 (051)320-6000 금정 (051)710-2369 기장 (070)0410-5545 남천 (051)750-2000 부산 북구 (051)678-7000 해운대 (051)709-6300 강원: 원주 (033)741-8800 춘천 (033)903-5000 대전: 대전 (042)363-2000 대전 유성 (042)602-2000 충남: 천안 (041)620-7000 충북: 청주 (043)299-9000 전북: 군산 (063)454-8000 전주 (063)226-8000 전남: 순천 (061)900-8500 광주: 광주 (062)226-0001 대구: 대구 (053)629-9000 대구 서구 (053)624-2000 경북: 포항 (054)256-9001 경남: 마산 (055)296-1004 진주 (055)757-8118 창원 (055)280-8300 울산: 울산 (052)701-0503 제주: 제주 (064)800-9800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d 4MATIC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010kg, 자동9단), 복합연비: 12.5km/ℓ(도심연비: 11.3km/ℓ, 고속도로연비: 14.4km/ℓ), 등급: 3등급, 복합 CO_2 배출량: 153g/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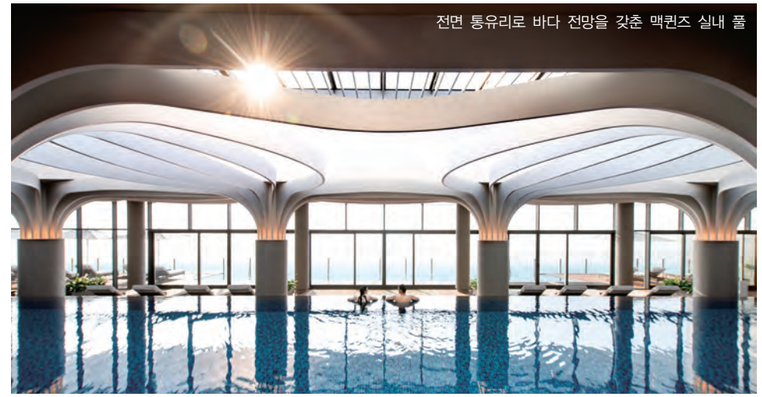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특급호텔 중 가장 큰 규모의 인피니티 풀

바다 그 너머
상상 그 너머

ANANTI COVE

눈에 띄는 마천루들이 많은 부산 해운대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등장했다. 천혜의 부산 앞바다를 오롯이 품에 안은 '아난티 코브'가 그 주인공이다. 6성급 힐튼 부산 호텔을 비롯해 회원제 리조트인 아난티 펜트하우스와 프라이빗 레지던스, 아난티 타운, 워터하우스, 야외 공연장, 해변 공원 등 수많은 즐길거리를 갖추고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면 통유리로 바다 전망을 갖춘 맥퀸즈 실내 풀

바다, 프라이버시, 휴식까지 품은 '만'

씨뷰 혹은 오션뷰를 선택해야만 바다를 조망할 수 있었다면, 아난티 코브에서는 어느 위치에서든 바다가 주는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작은 만'을 의미하는 '코브(Cove)'가 들어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안가를 따라 자리 잡은 아난티 코브와 바다 사이에는 시야나 소음 방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깊고 푸른 부산의 바다를 품에 안은 '코브'는 부산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아난티 코브로 떠나야 하는 이유

넓은 프라이빗 해변을 산책하고, 웰에이징 클리닉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피고, 반려동물과 바다를 마주보는 정원을 산책한다. 아난티 코브는 이 모든 휴식과 여행이 가능한 꿈의 목적지다. 특급 호텔 중 국내 최대 크기인 오션 인피니티 풀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돋보이는 힐튼 부산 10층 맥퀸즈 라운지 & 맥퀸즈 풀에서는 사계절 내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 15개의 라이프스타일 샵과 미식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은 기존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펼쳐 보인다.

바다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아난티 정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조망하기에 좋은
힐튼 부산 10층 맥퀸즈 풀

GREECE IN SPARKLE

파란 마을, 붉은 꽃,
하얀 길
그리고 황금 유산

KALPAK이 제안하는

[2인 출발]
[전세기 프레스티지석 탑승]
아테네·미코노스·산토리니 9일

일정 아테네(2)–미코노스(2)–
산토리니(2)–아테네(1)–
기내(1)

가격 ₩ 18,500,000~

문의 02–726–5704

태양이 빚은 황금 도시

ATHENS

A Heavenly Place on Earth

바람이 스쳐가는 곳에 신들의 손길이 머문다고 믿는 곳.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정의는 얼마나 따분한가. 아테네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아크로폴리스에서부터 아직도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오는 플라카, 수천년 된 교회와 성벽 골목에 현대식 상점과 카페가 들어선 모나스티라키까지 수많은 대명사들이 존재한다. 낮에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밤이면 금빛 가루가 뿌려져 빛나는 황금의 도시. 그곳이 바로 '지상 천국' 아테네다.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전세기 프레스티지석 탑승]
코발트블루빛 신들의 땅,
그리스 일주 9일

일정 수니온곶/아테네(2)–델피–킬리니(1)–올림피아–미케네–나프플리온(2)–고린도–산토리니(2)–아테네(경유)–기내(1)

가격 ₩ 18,000,000~

문의 02-726-5704

SEE

아테네는 유물의, 유물에 의한, 유물을 위한 도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적, 유물들 중 아크로폴리스는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히는 아테네의 상징이다. 파르테논 신전부터 디오니소스 극장,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공연장까지 세계사 책에서만 접했던 신비로운 고대의 유적들이 가득하다. 매 시 정각이면 신타그마 광장 앞 국회의사당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멋진 근위병 교대식을 볼 수 있다. 헬레닉 문화를 담은 독특한 유니폼, 근위병들의 절도 있는 동작 등이 런던의 버킹엄 궁전 못지 않다. 플라카 지구에서 모나스티라키로 향하는 길목에는 아테네 대성당이 위용을 뽐내고 있다. 그리스 정교회의 주교좌 성당인 대성당은 국가적인 행사나 사회 유명인사, 부유층의 결혼식 장소로도 자주 이용된다. 그리스의 간송 미술관이라 할 수 있는 베나키 박물관(Benaki Museum)은 박물관이 많은 아테네에서 '베스트3'로 꼽히는 박물관이다. 선사시대부터 중국, 이슬람 예술품 등 그리스의 부호 안토니오 베나키스가 기부한 4만여 점의 진귀한 소장품 컬렉션을 둘러보려면 반나절은 족히 필요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아테네가 그렇다.

1

2

3

1.
그리스 부호 안토니오 베나키스의 소장품 4만여점으로 이루어진 베나키 박물관

2.
중요한 의식, 축제 때 입었던 베나키 박물관의 귀족들의 의상 컬렉션

3.
'메트로폴리스'로 불리는 아테네 대성당

고대의 영광과 전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엘튼 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이 무대에 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아크로폴리스의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공연장에서 만큼은
역사가 단절이 아닌 계승이다.

4

5

6

Grand Bretagne
1 Vasileos Georgiou A,
Syntagma Square str, Athina
+30 21 0333 0000

King George
3 Vasileos Georgiou A,
Syntagma Square str, Athina
+30 21 0322 2210

STAY

신타그마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랜드마크는 다름 아닌 그란데 브레타뉴(Grande Bretagne) 호텔이다. 우아한 네오클래식 건축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럭셔리 컬렉션 호텔은 아테네의 현대사를 목도한 산증인이다. 고풍스러운 궁전의 내부를 떠올리게 하는 객실은 편안함과 전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꾸며져 있어 세계 최고의 명성을 실감하게 해준다. 압도적인 크기의 18세기 태피스트리 월의 알렉산더스 바(Alexander's Bar)와 아크로폴리스와 리카베투스 힐이 한 눈에 보이는 GB 루프 가든,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내부와 최상급 서비스의 GB 스파도 머무는 순간을 특별하게 장식해준다. 그란데 브레타뉴와 스카이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킹 조지(King George) 호텔은 아테네 여행을 만족스럽게 해줄 또 하나의 럭셔리 컬렉션 호텔이다. 마릴린 먼로, 그레이스 켈리, 프랭크 시나트라, 아리스토틀 오나시스 등 수많은 명사들이 아테네를 거치며 이곳을 선택했다. 격조 있는 가구, 화려한 샹들리에, 곳곳에 걸린 명화와 아티스트들의 오브제가 더 없이 우아한 하모니를 연출한다. 7층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는 아테네에서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4.
네오클래식한 무드의
그란데브레타뉴 스위트룸

5.
거대한 핸드메이드
태피스트리가 장식된
그란데브레타뉴의
알렉산더스바

6.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장식된 킹조지 로비

EAT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 고대 유적도 식후경이다. 미슐랭 2스타를 자랑하는 스타셰프 안젤로스 란토스가 이끄는 세계적 명성의 스폰디(Spondi)는 독특하고 세련된 프렌치 퀴진을 선보이는 '넘버원' 미식 레스토랑이다. 그 계절에 가장 신선한 재료로 가장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까닭에 메뉴가 자주 교체된다. 오래 전부터 그리스의 명사들이 사랑해온 유서 깊은 카페 조나스(Zonars)도 그윽하고 럭셔리한 분위기로 여흥을 더해주는 곳이다. 그릭 커피나 필터 커피도 맛있지만, 크리미한 느낌의 진한 에스프레소에 오렌지, 망고, 그레이프 프룻이 버무려진 소르베를 추천한다. 리노베이션을 거쳐 더욱 시크하게 변신한 킹 조지 호텔 7층의 스카이라운지 튜더홀(Tudor Hall)은 탁 트인 시야로 시각을 사로잡고 전통에 모던을 첨가한 감각적인 메뉴로 미각을 사로잡는 레스토랑이다. 아크로폴리스와 신타그마 광장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즐기는 양고기 샹크 스테이크는 아테네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다.

Spondi
Pirronos 5, Athina
+30 21 0756 4021
www.spondi.gr

Zonars
Voukourestiou 9, Athina
+30 21 0325 1430
http://www.zonarsathens.gr

Tudor Hall
Vasileos Georgiou A 3, Athina
+30 21 0322 2210
www.tudorhall.gr

7.
미슐랭 레스토랑 스폰디의
캐비어 랑구스틴

8.
그리스 최초의 미슐랭 2스타
셰프, 안젤로스 란토스

9.
카페 조나스의
트로피컬프룻 소르베

10.
명사들의 모임장소, 카페 조나스

11.
튜더홀의
양고기 샹크 스테이크

12.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튜더홀

7

9

11

8

10

12

TRY

신타그마 광장, 플라카 지구는 유독 많은 주얼리 샵들이 집결한 보석 상가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랜 세공 기술을 자랑해온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주얼리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 순방 중이던 미 대통령이 여사에게 선물할 보석을 고른 유명 매장도 있다. 이름부터 호사스러운 골든홀(Golden Hall)은 '유럽에서 가장 근사한 쇼핑몰'이라는 칭호를 얻은 황금색 기둥이 돋보이는 멀티플렉스다. 아르마니, 캐롤리나 헤레라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부터 그리스 주얼리 디자이너 리아나 부라키스(Liana Vourakis)까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광장을 중심으로 카페와 상점들이 혈관처럼 퍼져 있는 모나스티라키(Monastiraki)는 과거와 현재가 생생하게 만나는 현장이다. 그리스 전국의 골동품 수집가들이 모이는 모나스티라키 앤틱 마켓은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보물섬이다. 터키, 로마의 영향을 받아 독자 문화를 형성하게 된 그릭 하맘(Hammam)도 아테네에서만 해볼 수 있는 체험이다. 수증기 가득한 하맘에서 전통 방식의 각질제거, 풍성한 거품을 이용한 마사지를 받다 보면 묵은 여독이 말끔히 해소되는 디스트레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테네 여행을 화려한 금빛으로 장식할 하이라이트는 나이트 파노라마다. 리무진을 타고 둘러보는 밤의 아테네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테나 여신의 황금 정원만큼이나 아름답다.

13.
세계 정상들도 선택한
Maramenos&Pateras의
골드쉘 이어링

14.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골든홀

15.
그리스 디자이너
리아나 부라스키
보석매장

16.
골든홀 내
리아나 부라키스 매장

17.
모나스티라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리스신화 모티프의
체스보드들

18.
고대 방식의
하맘을 만날 수 있는 알 하맘

고대 세계의 중심
DELPHI

아테네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델피는 또 다른 고대의 황금 도시다. 어느 날 델피에 지구의 배꼽인 옴파로스가 떨어졌고, 그때부터 고대인들은 델피를 '세계의 중심'으로 믿었다. 델피에는 지금도 그 역사와 신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델피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아폴론 성역과 아폴로 신전이다. 오래전 신탁과 제전의 무대였던 곳으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폴론 성역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테나 프로나이아 성역도 엽서의 단골손님이다. 20개 중 남아있는 3개의 기둥은 당시 이곳의 높았던 위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델피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 아라호바(Arachova) 마을도 둘러보자. 예쁘고 조용한 산간 마을이지만 수도원, 치즈 공방, 와이너리 등 의외로 많은 볼거리가 숨겨져 있다.

아테나 프로나이아 성역

아라호바 마을

유물과 유적의 도시인 아테네를 떠나 차로 삼십 분만 달리면 항구와 해변의 행렬이 이어진다. 아티카의 남쪽 끝, 아테네가 숨겨놓은 보석 같은 호수가 있다. 야트막한 산과 울창한 수풀에 옴폭 감싸인 불리아메니(Vouliagmeni) 호수는 눈이 부시도록 푸른 천연 온천 호수다. 이곳에서 수영을 하면 운동과 피부 관리를 동시에 하는 효과가 있다. 온천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유럽과 미국 관광객들이 늘기 시작했다. 호수 곳곳에 심어진 라벤더, 스피어민트 등 허브가 연출하는 알싸한 향은 긴장을 풀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신비로운 님프의 숲이자 톰 소여의 모험을 가능케 하는 이 이색적인 힐링 스폿은 요가, 아쿠아로빅,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수중 활동을 보장한다. 한여름 밤에는 재즈 파티가 열리는가 하면, 다양한 테마로 와인 & 다이닝 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분리된 야외 공간에 마련된 프리베(Prive)에서는 느긋한 헛(Hut) 마사지도 즐길 수 있다.

자연이 숨긴 보석

VOULIAGMENI LAKE

A Hidden Treasure of Nature

1.
다양한 해면 동물과
연체 동물의 서식지로
살아있는 자연 학습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
불리아메니 호수.
이곳에는
최장 800미터에 달하는
동굴이 14개나 있다.

TRY

불리아메니 호수에 온 이상, 이곳의 시그니처인 온천 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경치에 눈이 즐겁고 주변의 새소리에 귀가 호강하는 천연 온천 스파는 그 어떤 곳에서의 유사 체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특별하다. 피로 회복 효과는 물론 미용 효과까지 탁월하니, 이 또한 일석이조다. 미로처럼 얽힌 14개의 동굴 중에는 수영을 즐기면서 탐험이 가능한 동굴도 있다. 유럽 '나뚜라 2000'에 등재되었을 만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 불리아메니 호수 동굴을 탐험해 보자. 불리아메니 호수는 흔히 닥터 피시로 알려진 '가라루파(Garra Rufa)'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천연 온천에서 즐기는 닥터 피시는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다.

Vouliagmeni Suites
8, Panos & Chloes str.,
Vouliagmeni
Tel: +30 210 8964901
https://www.vouliagmenisuites.com

STAY

자연이 선사하는 고요함과 편안함이 어우러진 5성급 불리아메니 스위츠(Vouliagmeni Suites)는 감각적인 레이아웃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돋보이는 부티크 호텔이다. 가든뷰와 씨뷰, 혹은 불리아메니 뷰 옵션의 객실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바다 전망의 스위트 룸과 해변을 마주한 야외 수영장이 선사하는 그림 같은 풍경은 왜 이곳이 그리스의 '리비에라'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EAT

테르말 스파 불리아메니(Thermal Spa Vouliagmeni) 내 올데이(All Day) 바 레스토랑은 가볍고 건강한 메뉴와 음료로 또 다른 힐링을 제공한다. 온천욕, 또는 프라이빗 마사지 후 즐기는 오가닉 브리오슈 샌드위치나 병아리 콩과 프로슈토, 100% 그리스산 유기농 채소로 만든 그린 샐러드 등의 스낵이나 올데이 브렉퍼스트는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힘을 부여해준다.

2.
아티카의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된
오션뷰 객실

3.
모던한 디자인의
라운지 바

4.
오가닉 브리오슈
샌드위치와
오가닉 프로슈토 그린 샐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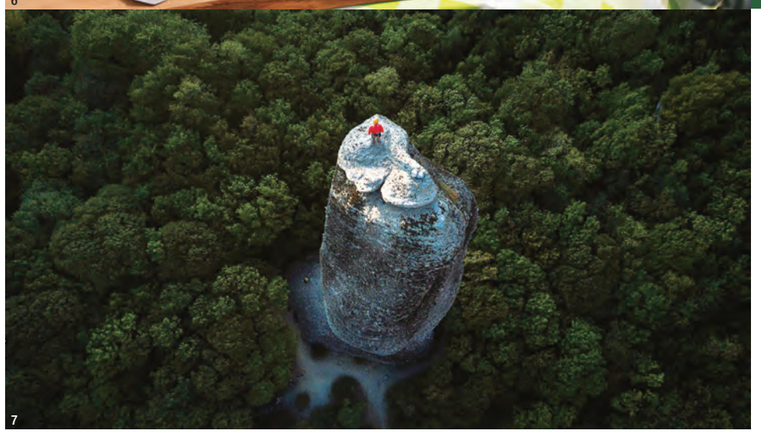
5.
호수가 내다보이는
올데이 바&레스토랑

구름 속의 산책

METEORA

Walking in the Air

6



7

신록(新綠)이라는 단어로는 메테오라를 설명할 수 없다. 메테오라에는 분명 시대를 거스른 초현실적인 건축물들과 함께 메르헨의 마법의 숲을 걷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공존한다. 걷다 보면 안개 너머 공중에 떠도는 수도원들과 마치 수호신처럼 이들을 둘러싼 거대한 암석들이 이루는 웅자의 일부가 되는 곳. 우주를 탐험하듯 시공간적 감각을 모두 잃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칼람바카의 메테오라다.

8

6.
직접 채취한 트러플을
요리해먹는 트러플 헌팅

7.
기암절벽을 타고 오르는
묘미가 있는 암벽등반

8.
자연이 만든 지형과
인간이 만든 길

그리스 중서부 테살리 지방의 수도원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인 메테오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독특한 건축술과 빼어난 자연의 조화로 메테오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숲과 기암절벽이 연출하는 장관은 산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곳에 반하게 만드는 마법을 발휘한다. 안개가 낀 날이면 높은 암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메테오라'. 수도원 기행으로도 충분하지만, 스펙터클한 절경을 배경으로 암벽등반이나 선셋 투어를 즐긴다면 더욱 특별한 기억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송로버섯 마니아라면 야생 송로버섯을 찾아나서는 트러플 헌팅을 하이킹 코스에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직접 채취한 트러플로 만든 셰프의 요리보다 고귀한 산해진미는 세상에 없을 테니 말이다.

미노코스를 가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대표 섬은 늘 산토리니였다. 하지만 미코노스가 전해주는 느낌이나 단상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 우리에게 낯선 미코노스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때문에 친숙하다. 그의 여행 에세이 '먼 북소리'에는 하루키가 한 달 반 동안 머물렀던 미코노스에서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여름의 미코노스는 굉장히 즐겁다. 미코노스에 머무는 건 일종의 축제와도 같다.' 하루키는 낮의 한적한 풍경 못지않게 밤의 화려한 모습도 즐겼던 듯하다. 확실히 미코노스에는 누구나 들뜨게 만드는 아누스의 매력이 있다.

일상이 축제인 신들의 섬

MYKONOS

The Island of the Gods

1

1.
하얀 미로길이 즐거운
중심 타운 코라

에게 해가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 바다 위에 보석처럼 흩뿌려진 크고 작은 섬들 때문일 것이다. 에게 해를 부유하는 220여개의 섬들 가운데 미코노스는 단언컨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이다. 만년설처럼 하얗게 뒤덮인 미로 같은 골목들도 그렇지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서 있는 수백 개의 교회는 미코노스를 더욱 성스럽게 보이게 하는 장치다. 동이 트면 바다 저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등 신들의 고향인 델로스로 향하는 관문이 되지만, 밤이 되면 세계의 보헤미안들이 모여드는 매혹적인 에메랄드 해변으로 변하는 곳. 푸른 물살이 전설처럼 와 닿았다 거품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해변을 걷는 해맑은 미소의 소녀들은 이곳의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대가 된다.

2

SEE

미코노스의 풍광은 리틀베니스(Little Venice)에서 시작해서 리틀베니스로 완성된다. 운하를 따라 색색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이탈리아 베니스와 흡사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알록달록한 집들은 18세기 중반에 지어지기 시작한 것들로 과거 부유한 상인들이나 선장들의 거주지였다고. 리틀베니스의 끝 카스트로 언덕에 이르면 독특한 모습으로 서 있는 파나기아 파라포르티아니(Panagia Paraportiani) 교회를 만날 수 있다. 커다란 눈덩이가 흘러내린 것 같은 지금의 모습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각기 다른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 5개가 합쳐져 완성된 것이다. 엽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하얀 풍차의 카토밀리(Kato Mili) 언덕은 바람의 섬 미코노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밀짚모자를 씌워놓은 것 같은 풍차가 석양에 물들어갈 때면 미코노스는 더 없이 낭만적인 섬으로 변한다.

2.
미코노스의 상징인
카토밀리 풍차 언덕

STAY

Royal Myconian Resort
Elia Beach, Mykonos, Greece
+30 22890 72000
https://www.royalmyconian.gr

Myconian Kyma Design Hotel
Mykonos Town, Mykonos
+30 2289 023415
https://www.myconiankyma.gr/

미코노스에서 가장 길고, 입자가 고운 모래 해변으로 꼽히는 엘리아 비치(Elia Beach)에 위치한 로열 미코니언(Royal Myconian) 리조트는 일상의 휴식을 꿈의 휴가로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리스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인테리어는 앤틱한 무드에 뉴에이지 감성의 판타지를 가미했다. 프라이빗한 발코니나 테라스가 딸린 침실, 또는 스위트룸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 자쿠지는 최상의 안락함을 약속한다. 미코노스 타운에 둥지를 튼 미코니언 키마(Myconian Kyma) 부티크&디자인 호텔은 클래식한 분위기에 미코노스 시크를 더한 5성급 호텔이다.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부티크 호텔은 스타일리시한 룸과 세련된 디자인, 최고급 어메니티의 삼박자로 완성된다.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요소들 중에는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베란다, 자쿠지나 프라이빗풀 같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다.

3

4

5

3.
로열 미코니언 리조트 내
탈라소(Thalasso) 센터

4.
프라이빗 풀이 딸린
로열 미코니언 그랜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5.
미코니언 키마의 Aegean
자쿠지 테라스 씨뷰 룸

6

7

Nostos Pool Bar
Elia Beach, Mykonos, Kikladhes
+ 30 22890 79500
www.myconianimperial.gr

Kazarma
Akti Kampani Mykonos, Kikladhes
+ 30 22890 28256

EAT

미코노스는 산토리니와 더불어 키클라데스 최고의 '미식' 섬이다. 최고급 레스토랑부터 전통 타베르나까지 옵션이 다양하다. 로얄 미코니언의 암브로시아 레스토랑 앤 테라스(Ambrosia Restaurant&Terrace)는 수석 셰프인 게오르규 오이코노무의 철학이 담긴 단품 메뉴부터 카카비아(Kakavia) 수프, 타마리스크를 곁들인 민어 요리 등 고메 요리까지 두루 맛볼 수 있는 미코노스 최고의 레스토랑이다. 리틀베니스로 향하는 해변에 위치한 카자르마(Kazarma)는 낭만과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미코니언 임페리얼의 노스토스 풀바(Nostos Pool Bar)는 독특한 블렌딩의 칵테일과 함께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신선한 메뉴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8

9

6, 7
미코니언 임페리얼
노스토스 풀바

8.
리틀베니스로 향하는
해변에 위치한 카자르마

9.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암브로시아
레스토랑 앤 테라스

10.
미노코스 호스랜드의
해변 승마 트레킹

11.
미코니언 임페리얼의
쇼핑 아케이드

10

11

TRY

산토리니에서 당나귀를 타고 언덕을 올랐다면, 미코노스에서는 말을 타고 해변을 달리는 승마 체험을 권한다. 런치 피크닉이나 선셋 라이딩 등 원하는 옵션을 추가해 맞춤형 코스를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고향인 델로스(Delos) 섬으로의 프라이빗 크루즈, 혹은 헬리콥터 여행도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크루즈와 델로스 투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만큼 매력도 배가한다. '파티의 섬' 미코노스에는 그만큼 파티 전문 업체도 많다. VIP 파티 플래너를 거치면 색다른 파티나 잊지 못할 이벤트를 통해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미코노스에서 일상과 쇼핑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스 디자이너의 부티크에서부터 아트 갤러리, 해외 유명브랜드 편집샵 등 골목 골목이, 섬 전체가 거대한 컬렉션이나 다름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게 '진리'다.

아틀라스가 품었던 순백의 꿈

KYLLINI

The Atlas Dream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은 눈부신 태양을 만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 여흥에 감미로움을 더해주는 건 에게 해의 세찬 바람과는 사뭇 결이 다른 부드러운 미풍이다. 엘리스와 펠로폰네소스 최서단에 위치한 킬리니(Kyllini)는 그리스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이오니안 해역에 다리를 걸친 반도다. 바다 건너에는 자킨토스 항구의 돛을 단 요트와 선박들이 오래 전 아틀라스가 가졌던 꿈을 품고 아직 가보지 못한 바다 너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을 부지런히 실어 나른다.

1

1.
〈태양의 후예〉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한
자킨토스 섬

2.
웅장한 규모로 압도하는
엘릭시르 탈라소테라피 센터

3.
가족 단위의 여행자도
편안히 묵을 수 있는
만돌라 로사 그랜드 빌라

3

2

Grecotel Mandola Rosa
Kastro, Kyllini, Peloponnese
+30 2623 064555

STAY

2킬로미터에 달하는 해변을 최적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만돌라 로사(Mandola Rosa)는 쓰리베드룸 빌라와 파이브베드룸 그랜드 빌라로 구성된 럭셔리 비치프론트 레지던스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는 박물관이나 고급 갤러리를 방불케 하며, 분리된 빌라의 내부 공간은 대규모 가족 단위라 할 지라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넓은 정원에 마련된 별도의 풀 데크(pool deck)는 정원과 해변을 하나로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한다.

TRY

4500 평방미터 규모의 엘릭시르(Elixir) 탈라소테라피 센터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릭 탈라소테라피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고대 신전을 연상케 하는 실내에 들어서 몸을 담그는 순간, '하루 한번 목욕을 하면 몸은 물론 마음의 때도 씻을 수 있다'던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절로 연상된다. 〈태양의 후예〉에 소개되어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난파선의 섬 자킨토스(Zakynthos)로의 크루즈도 킬리니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 중 하나다. 때묻지 않은 낙원의 이미지가 실제 눈앞에서 구현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의 나폴리

NAFPLIO

The Greek Napoli

이름마저 비슷하다. 나폴리와 나플리오. 그래서일까? 봄이면 유독 붉은 부겐빌레아가 만개하는 이 도시에 '나플리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포세이돈과 아미노네의 아들인 나우플리오스가 건설했다고 알려진 나플리오는 오랜 세월 베니치아와 오토만의 지배를 받았다. 1770년경 펠로폰네소스는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나플리오는 독립한 그리스의 첫번째 수도가 되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머물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SEE

나플리오 도심에 들어서는 순간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 랜드마크는 바로 팔라미디 요새다. 가파른 999개의 계단을 오르고 숨이 턱 끝에 닿을 무렵이면 코발트블루빛 바다와 붉은 집들의 선명한 대비가 시야에 들어온다. 항구에서 600미터쯤 떨어진 바다 한 가운데 자리한 부르치 요새도 매혹적인 볼거리다. 한때는 침입자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도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항구부터 등대까지 이르는 악티 마올리 길은 나플리오에서 가장 낭만적인 해변산책로이다. 자전거, 미니관광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부르치 요새로 떠나는 작은 보트도 이곳에서 탈 수 있다.

1. 보트를 타고 들어가 공연도 즐길 수 있는 부르치 요새
2. 코발트블루 바다를 품은 알파트리온 호텔 전경
3. 암피트리온 호텔 럭셔리 스위트의 데크

STAY

Amphitryon Hotel
3-5 Spiliadou st, Nafplio
+30 2752 070700
http://amphitryon.gr

5성급 암피트리온 호텔은 부르치 요새와 베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뒤로는 팔라미디 요새와 아크로 나플리오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한다. 전 객실이 바다를 조망하게 설계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장식된 욕실에서는 하이드로 젯 샤워와 에어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부르치 요새를 품은 객실 내 전망은 호텔 체험의 하이라이트다. 눈앞에 펼쳐진 해안산책로도 밤의 낭만을 200% 더해준다.

4.
쓰리식스티
그릴 다이닝 & 와인바

5.
쓰리식스티의 시그니처인
앙구스 그릴 스테이크

6.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핸드메이드 브로치들

7.
2대째 가죽 제품을
100% 핸드메이드로
제작하는 샌달워크샵

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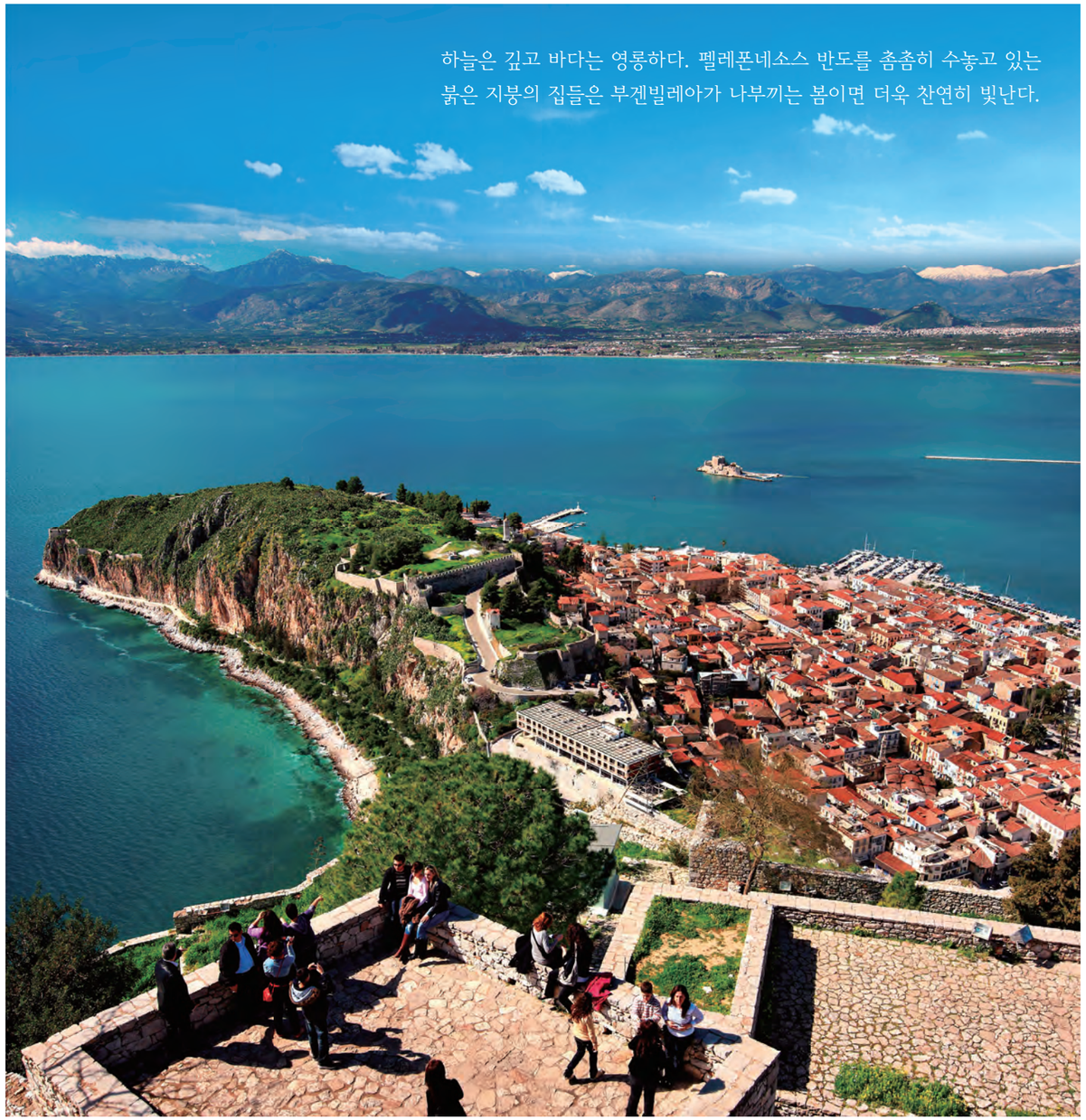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즐비한 신타그마 광장에서 유독 네오클래식한 건축양식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와인&그릴바 '쓰리식스티(3Sixty)'는 수많은 미식 잡지와 고메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유명 레스토랑이다. 구운 토마토, 석류와 곁들여 나오는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와 네메아 등 펠로폰네소스 지방의 대표 와인 산지에서 공수된 각종 와인은 나플리오만의 풍미를 더해주는 마리아주를 완성한다.

3Sixty Grill Dining & Wine Bar
Vas.Alexandrou & Ferreou, Nafplio
+30 2752 028068
http://3sixty.life

TRY

'작지만 강하다'. 나플리온의 쇼핑가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형용은 없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어우러진 이 고장만의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독특한 쇼핑 체험을 선사한다.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진 원목 제품이나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기념품들도 즐거움을 주지만, 공방에서 100% 수공 제작되는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들은 놀라운 완성도로 감동을 선사한다. 2대째 핸드메이드 샌달을 제작하는 '샌달워크샵(Sandal Workshop)'에서 나만의 그리스신화를 완성해줄 맞춤형 샌달을 디자인하는 것은 어떨까.

하늘은 깊고 바다는 영롱하다.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촘촘히 수놓고 있는
붉은 지붕의 집들은 부겐빌레아가 나부끼는 봄이면 더욱 찬연히 빛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일몰

CAPE SOUNION

The Most Unforgettable Sunset

8

아틱 반도 최남단 수니온 곶에는 바다를 다스리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는 포세이돈 신전이 서 있다. 포세이돈의 호령인 양 세찬 파도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정도라면, 강렬한 버건디 레드로 하늘을 물들이는 저녁의 해는 세상의 모든 색과 명암을 지배한다. 금세라도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수니온 곶의 일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일찍이 이렇게 썼다. '수니온의 대리석 기둥 앞에 서니, 우리의 속삭임마저 삼키는 파도와 나 외엔 아무것도 없구나.'

8.
황혼 속에 장관을 연출하는
포세이돈 신전

9.
오아시스와 재클린의
데이트 장소였던 카페 나오스

10.
카페 나오스의
초콜릿아이스크림 파르페

TRY

땅 끝, 혹은 하늘로 이르는 길. 수니온 곶 입구에는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카페 나오스(Naos)'가 있다. 포세이돈 신전이 한 눈에 들어오는 위치도 최고지만, 그보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종종 재클린을 데리고 와 수니온의 일몰을 감상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9

10

아틀란티스의 전설이 꿈틀거리는 땅

SANTORINI

The Land of the Legend of Atlantis

신이 빚고 인간이 그린 섬. 산토리니는 감히 '작품'이라는 찬사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섬이다. 산토리니를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자연이 완성한 그림 속으로 들어가 그 일부가 되는 것이다. 높은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는 깎아지른 절벽 마을과 검붉은 화산섬, 한없이 푸른 바다와 지붕은 무아지경의 행복감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일 때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밀어를 속삭이는 섬. 사람들은 산토리니의 꿈 같은 풍경을 보며 사라진 땅,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이야기한다.

1

2

1.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서점'으로 불리는 아틀란티스 서점

2.
블루와 옐로의 대비가 근사한 성 조지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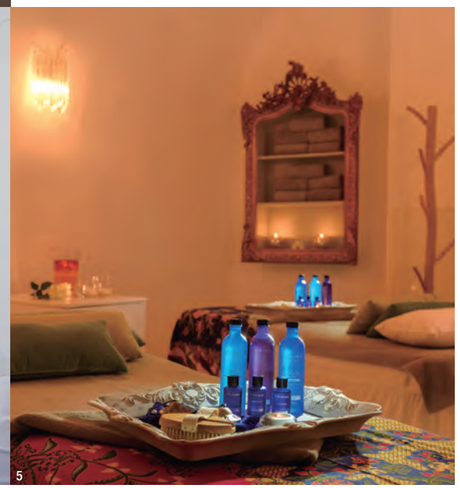
SEE

키클라데스 제도 최남단에 위치한 산토리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녔다.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칼데라 지형과 푸른 혈관을 끝없이 확장한 에게해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 사람들이 섬섬옥수로 일군 피라 마을과 이아 마을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우리를 매혹한다. 특히 '산토리니 풍경'으로 유명한 이아 마을의 마이 블루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은 숨쉬는 것을 잊게 할 만큼 압도적이다. 올드 포트에서 바라보는 네아 카메니(Nea Kameni) 화산섬이나 '100% 자연산'이라 더 놀라운 붉은 절벽의 레드 비치(Red Beach) 만큼 진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이곳에 놀러 왔다 반해서 영영 눌러앉은 영국인 '책방지기'가 차린 아틀란티스 서점(Atlantis Bookstore)이나 평범한 흰색 채플들과 대조를 이루는 이아 마을 입구의 샛노란 성 조지(Saint George) 교회 같은 이색적인 오너먼트들이다.

원래는 하나의 큰 섬이었다가 화산 폭발로 고대의 취락을 파괴하며
남은 잔해물이 독특한 칼데라 지형을 이뤘다.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절경과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산토리니를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었다.

3

4



5

STAY

산토리니의 전통 가옥을 개조해 만든 독특한 구성의 부티크 호텔만큼 유니크하고 즐거운 스테이가 또 있을까? 칼데라 뷰가 보이는 이아 마을의 절벽에 위치한 카티키스 호텔(Katikies Hotel)은 코티지의 아늑함에 인피니티풀 등 5성급 호텔의 럭셔리가 더해진 부티크 호텔이다. 칼데라를 품은 멋진 전망, 자쿠지가 설치된 선데크, 저녁이면 촛불을 밝히는 로맨틱한 옥외 다이닝 공간은 허니무너에서부터 커플, 가족까지 두루 만족시키고도 남는다. 새롭게 개장을 마친 카나베스 이아 스위츠(Canaves Oia Suites)도 모던한 인테리어와 에게 해를 한눈에 아우르는 전망이 결합된 럭셔리 스위트다. 넓은 거실 공간과 프라이빗 풀은 세계 최고의 전망을 최상급 서비스와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과유불급'이라지만 산토리니에서만큼은 아무리 지나쳐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Katikies Hotel
Nik. Nomikou (Main Street), Oia
+30 2286 071401
https://www.katikies.com

Canaves Oia Suites
Oia 84702, Thira
+30 2286 071844
www.canaves.com

3.
카티키스 호텔 인피니티풀

4.
카나베스 오이아 스위트

5.
18세기 와인 셀러를 개조한
카나베스 스파

6.
산토리니의 명소,
리카베투스 레스토랑

7.
화산섬이 보이는 카티키스
풀바앤레스토랑

8.
푸른 조명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모믹스바

6

7

EAT

산토리니는 체리토마토와 파바빈, 가지, 케이퍼, 빈산토 등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식재료를 자랑하는 미식의 섬이다. 첫 손에 꼽을 만한 다이닝 플레이스는 해외 유수의 매거진에 소개되며 산토리니 레스토랑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된 리카베투스(Lycabettus) 레스토랑이다. 아슬아슬한 벼랑 끝 발코니 공간으로 이름을 얻은 이곳은 해산물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요리해 선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식도락의 즐거움은 물론, 전망도 포기할 수 없다면 전통적인 아나톨리안 퀴진을 선보이는 카티키스 호텔의 미크라시아(Mikrasia)나 풀바앤레스토랑(Pool Bar & Restaurant)을 예약할 것. 흔히 볼 수 있는 에피타이저에서부터 산토리니만의 방식으로 살짝 변주된 런치 및 디너 메뉴를 엑조틱한 칵테일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름마저 생소한 '몰큘러 믹솔로지'를 칵테일에 도입, 난생 처음 보는 칵테일과 버블샷으로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모믹스 바(Momix Bar)도 '머스트 비짓'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할 곳이다. 에게해를 재현한 듯한 실내, 파란 칵테일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 오르는 스머프 버블샷은 산토리니의 푸른 밤에 마법의 색채를 더해준다.

8

TRY

'산토리니에는 사람보다 당나귀가 더 많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토리니에서 당나귀는 오랫동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케이블카와 찻길이 나면서 교통수단으로는 쓸모가 없어졌지만, 대신 동키 택시(Donkey Taxi)가 산토리니의 옛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평지에서 말을 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체험으로, 항구에서 절벽 꼭대기까지 당나귀를 타고 오르다 보면 전율과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진다. 가파른 언덕을 순식간에 오르내리는 곤돌라 리프트 텔레페릭(Teleferic)은 경관과 스릴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산토리니만의 이동수단이다. 네아 카메니 화산을 찍고 돌아 오는 칼데라 크루즈도 놓치지 말아야할 체험이다. 미식과 와인을 음미하며 둘러보는 산토리니의 해변과 섬들이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와 닿는다. 피라 마을에서 이아 마을을 잇는 구불구불한 길은 세상에서 가장 걷고 싶은 하이킹 코스로 꼽힌다.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것,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산토리니에는 산토리니를 닮은 보석과 예술품들이 참 많다. 터키블루의 바다를 그대로 담은 장식품이나 주얼리들은 어디에서나 돋보일 뿐 아니라 이 눈부신 섬에 대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해준다. 외부와 차단된 호텔이나 프라이빗 빌라의 인피티니 풀이나 욕조에서 칼데라를 감상하며 즐기는 느긋한 케이브 스파는 산토리니 체험의 하이라이트다. 한때 와인 셀러나 비밀 창고로 쓰이기도 했던 이곳만의 동굴 지형은 더없이 편안하고 아늑한 무드를 연출해 준다.

10

11

9

9.
당나귀를 타고 오르내리는
당나귀 언덕길

10. 11.
콘스탄티노(Konstantino)의
'에게해 컬렉션'

12.
아티스트의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수공예샵

13.
산토리니의 지형을 활용한
독특한 케이브 스파

14.
피라마을과 이아마을을 잇는
구불구불 하이킹 코스

15.
런치 혹은 디너가 포함된
프라이빗 크루즈

16.
절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피라마을의 텔레페릭

12

15

13

14

16

조르바의 향구

PIRAEUS

The Port of Zorba the Greek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각. 땅거미가 내려앉은 피레우스(Piraeus)항은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 조르바>의 모델이 된 실제 조르바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곳, 피레우스항이었다. 그리스의 남동부에 위치한 피레우스항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항구로 도시 곳곳에는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명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항구 외에도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지어진 요새와 성문, 고대 도시 유적 등 볼거리가 많지만 무엇보다 피레우스를 유명하게 만든 존재가 있다면 순도 100%의 자유인 '조르바'가 아닐까.

17.
그림 같은 야경의
미크롤리마노 항구

18.
정통 그리스식을 맛볼 수 있는
스토아 라카디코

18

SEE

제 아무리 그리스인들, 피레우스에서만큼은 고대 유적보다 수많은 영감의 원천이 된 항구가 훨씬 흥미롭다. 이오스, 미코노스 같은 관광지에서부터 산토리니, 크레타로 가는 페리 등 대형 여객선들이 피레우스항(The Port of Piracus)에서 출발한다. 예전의 명성은 잃었지만 그리스인들의 생활상과 삶의 희로애락을 엿볼 수 있는 미크롤리마노(Mikrolimano) 항구도 흥미롭다. 사진으로만 접했던 세계적인 선박, 요트, 피싱보트들이 화려한 빛을 알알이 수면 위에 흩뿌리는 밤의 항구는 그 어떤 명화보다 인상적이다.

EAT

어디선가 구성진 산투리 자락이 흘러나올 것만 같은 유서 깊은 '1897 아케이드'. 말을 타고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여인숙으로 처음 문을 연 스토아 라카디코(Stoa Rakadiko)는 이제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변모해 있다. 큼지막한 치즈 볼에 담겨 나오는 치즈 파스타는 물론,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라키(Raki)를 반주로 곁들여 먹는 그리스 북부산 유기농 흑돼지로 만든 블랙앵구스(Black Angus) 그릴은 이곳이 아니면 맛보지 못할 별미다.

Stoa Rakadiko | Karaoli ke Dimitriou 5, Pireas
+30 21 0417 8470
www.rakadiko.gr

Thessaloniki
Mount. Olympus
Ionian Sea
Aegean Sea
Delphi
Korinthos
Athens
Piraeus
Zakynthos
Nafplio
Mykonos
Santorini
Crete
Mediterranean Sea

여행시 지참 필수!

일러스트 지도로 보는 오색찬란, 오감만족 그리스

Travel Recipe

아테네 Athens
아크로폴리스, 제우스 신전,
신타그마 광장, 플라카,
모나스크라키, 유물, 박물관,
야경, 근위병 교대식,
미슐랭 레스토랑, 벼룩시장,
주얼리 쇼핑, 그릭 하맘

산토리니 Santorini
피라마을, 이아마을,
아크로티리 유적,
럭셔리 케이브 스파,
칼데라 크루즈, 화이트 와인

델피 Delphi
아폴론 성역,
아테나 프로나이아 성역,
움파로스, 올리브, 치즈,
아라호바 마을

수니온곶 Cape Sounion
포세이돈 신전, 카페 나오스,
선셋, 하이킹,
리비에라 요트투어

피레우스 Pireaus
항구, 크루즈쉽, 고대 아레나,
미크롤리마노항, 그리스 전통음식,
니코스 카잔차키스 박물관

나플리오 Nafplio
팔라미디요새, 아크로나플리오,
부르치 요새, 해안 산책로,
야외 공연, 크래프트샵,
레드와인

미코노스 Mykonos
리틀 베니스, 풍차 언덕, 미로,
나이트 라이프, VIP 파티,
부티크 쇼핑, 피크닉, 승마

킬리니 Kyllini
바나나 해변, 난파선 해변,
비치라이프, 칵테일,
탈라소테라피,
워터파크, 크루즈

크레타 Creta
이라클리오, 크노소스 궁전,
그람부사&발로스 라군,
사마리아 협곡, 역사탐방,
크레타 전통음식, 하이킹

멋진 추억일수록 오래도록

짐을 꾸리는 순간부터 내겐 여행에서 즐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화보 속의 모델이 되었다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스크린 속의 여배우가 되기도 하지. 멋진 추억만 골라 오래도록 남겨주는
나만의 여행 일기를 써내려 가는 거야.

Muse, 난 꿈을 꾸는 여행자니까.

여행이 드라마가 되는 Muse

-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녀들의 〈파리 6일 / 파리&노르망디 8일〉
- 안녕, 체코의 모든 순간 〈체코 7일〉
- Hola, Espana!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스페인 8일〉
- 알로하, 행복의 섬에서 쓰는 일기 〈하와이 6일〉
- 행복한 소녀가 되어 〈방콕 5일〉
- 눈부신 햇살처럼 빛나는 별빛처럼 〈푸껫 5일〉
- 신들의 섬에서 누리는 천상의 휴식 〈발리 5일〉
- 도시의 완성 〈싱가포르 5일〉
- 반짝이는 것이 좋아 〈홍콩 3일〉
- 달콤 상큼한 설렘 〈오사카 3일〉
- 찬란한 시간 속으로 〈도쿄 3일〉

한진관광 여행상담 Muse 프랑스, 체코, 스페인 02. 726. 5533~4 / Muse 하와이, 방콕, 푸껫, 발리, 싱가포르, 홍콩, 오사카, 도쿄 02. 726. 5535~6

Muse
Inspired by KALPAK

The new C-Class with Mercedes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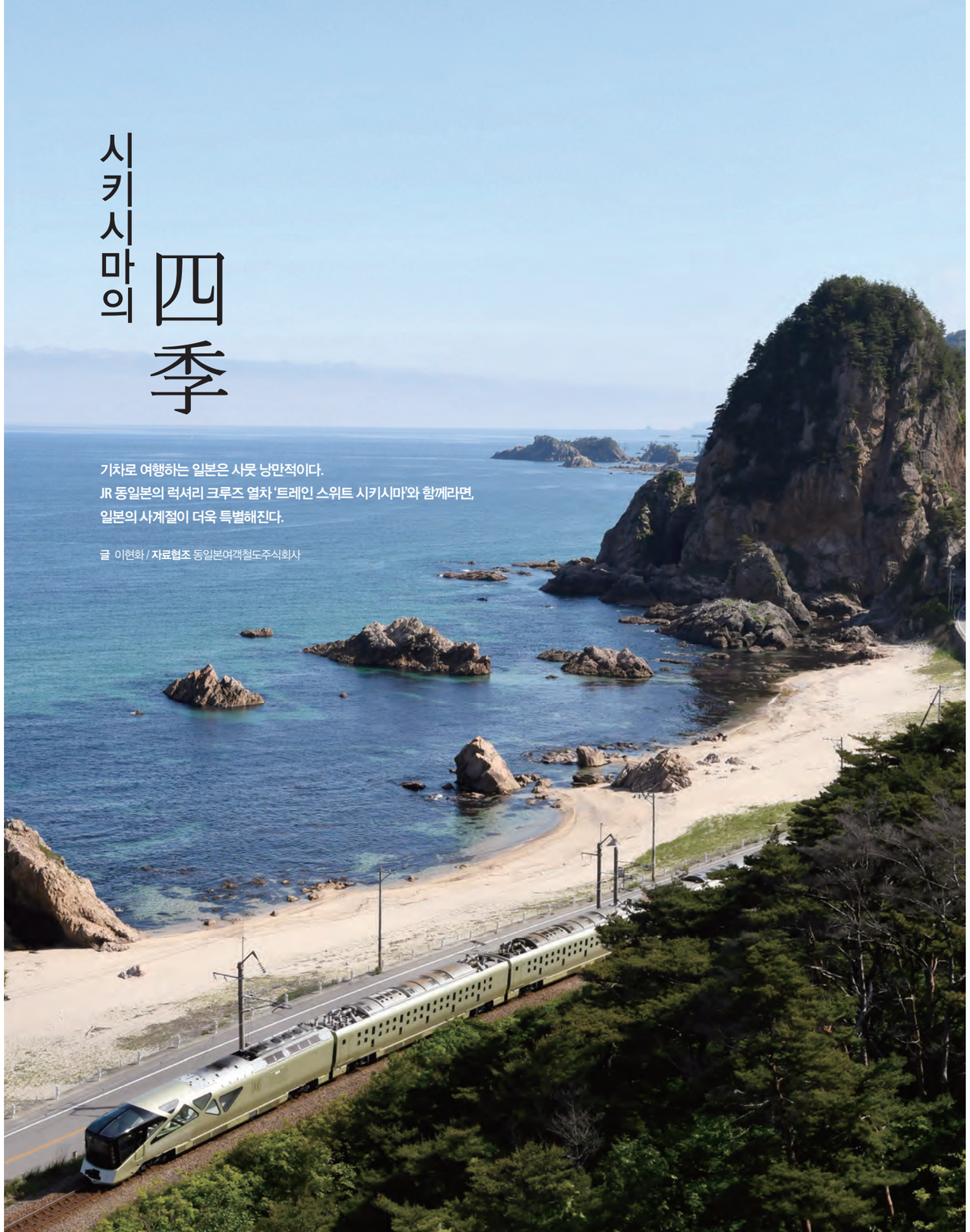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50cc, 공차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 CO_2 배출량: 131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키시마의 四季



기차로 여행하는 일본은 사뭇 낭만적이다.
JR 동일본의 럭셔리 크루즈 열차 '트레인 스위트 시키시마'와 함께라면,
일본의 사계절이 더욱 특별해진다.

글 이현화 / **자료협조**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Wonders like never before

금빛으로 빛나는 시키시마가 도쿄 우에노역을 유유히 빠져나간다.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 동안 일본 동북부를 돌아보는 여정의 시작이다. 총 10량의 열차는 두 개의 뷰 테라스와 여섯 개의 객실 칸, 라운지와 다이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디자인은 '非이탈리아인으로서 최초로 페라리를 디자인한 남자'로 불리는 켄 키요유키 오쿠야마(奥山 清行)가 담당했다. 손으로 짠 야마가타 카펫과 아키타 장인이 만든 목가구 등 동일본에서 나는 소재만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란 뜻의 라운지 '코모레비(こもれび)'에서 그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열차의 맨 앞뒤에 자리한 뷰 테라스는 천장까지 대형 창으로 마감한 덕분에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동일본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Only for 34 passengers

시키시마의 객실은 단 17개. 한 객실당 2인까지, 최대 34명의 승객만 탑승할 수 있다. 일본 전통종이 '와시(和紙)'와 이와테현의 생옻칠로 마감한 벽, 센다이 스타일의 전통 옷장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재패니즈 클래식을 곳곳에 가미했다. 15개의 '스위트'는 거실 겸 침실과 샤워실을 갖췄고, '디럭스 스위트'는 거실 겸 침실과 벽난로, 히노키 욕조를 완비했다. 가장 좋은 객실인 '시키시마 스위트'는 복층 구조다. 코타츠가 놓인 다다미방과 대형 창문이 딸린 히노키 욕조가 눈에 띈다. 일본 최초의 미슐랭 스타 셰프 나카무라 가쓰히로(中村 勝宏)가 메뉴를 고안한 시키시마의 다이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미소 된장과 와사비 등 일본만의 정서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프렌치 다이닝으로 '달리는 3스타 레스토랑'을 실현한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하는 고속철도의 시대지만,
기차 특유의 느긋한 여행이 문득 그리운 순간이 있다.
'철도 왕국' 일본의 '트레인 스위트 시키시마(Train Suite 四季島)'는
이름처럼 동일본의 사계(四季)가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완행열차다.

Journeys to discover hidden depth

시키시마는 임시열차다. 봄·여름, 가을, 겨울 시즌으로 나눠 정해진 기간에 1박 2일부터 3박 4일까지의 코스로만 운행한다. 여정에 따라 닛코 도쇼구(東照宮), 아오모리 산나이마루야마 유적(三内丸山遺跡), 하코다테 등의 관광지 혹은 지역 농장이나 양조장을 둘러볼 수 있다. 중간에 온천이 있는 료칸에 숙박하거나, 구리를 두드려서 만드는 추기동기(鎚起銅器) 공방에서 장인을 만날 수도 있다. 사계절 다른 맛과 멋으로 맞이하는 일본의 속살을 이보다 더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 물론 34명 안에 들려면 추첨운이 따라줘야 한다. 오는 4월 12일까지 2019년 가을·겨울 여행을 모집하니 관심이 있다면 내 운을 시험해봐도 좋겠다. 기차는 여전히 추억을 싣고 달리고, 완행열차에서 바라본 차창 밖 잔상은 오래갈 터이다.

TAKE ME SOMEWHERE

초경량 무게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실용적인 수납공간, 베어링 처리가 된 4휠, 무선 주파수 인식(RFID) 방지처리로 개인 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한 #MY4810 트롤리 컬렉션, **몽블랑**

❶ IT기기 수납이 용이한 전용 포켓과 다양한 수납공간, 캐리어 핸들에 안전하게 가방을 거치할 수 있는 애드어백 기능을 더한 어리베 백팩. **투미** ❷ 천연 소가죽, 그레이와 블루 컬러의 오일 코튼 캔버스로 제작된 뉴 아이코닉 더플백. 삼색컬러 포인트로 프랑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S.T.듀퐁** ❸ 최상급 가죽과 내구성 좋은 패브릭을 결합한 듀코드 시티 더플백. 가죽 핸들과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이 구성되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하트만**

❹ 다크 브라운, 브라운, 아이보리 컬러의 조화가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비텔로 피오레 레더 소재의 큐브 패치워크 카프 레더 트래블 백. **벨루티** ❺ 레드와 블루, 블랙 컬러가 오묘하게 그라데이션된 가죽을 손잡이에 배치해 벨루티만의 스타일을 뽐낸 큐브 나일론 & 베네치아 카프 레더 트래블 백. **벨루티** ❻ 블랙 컬러에 심플한 디자인,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포켓과 손잡이 부분을 가죽으로 매치해 고급스러움까지 더한 보스턴 백. **아.테스토니**

여행의 설렘은 여행가방을 꾸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도로시의 빨간 마법구두처럼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마법가방. 스타일과 기능을 동시에 갖춘 럭셔리 트래블백을 소개한다.

에디터 김홍주 / **자료협조** 구찌, 리모와, 몽블랑, 벨루티, 에르메네질도 제나, 투미, 하트만, S.T.듀퐁

NOTHING BETTER THAN THIS

❶

❶ 고급스러운 베네치아 카프 스킨 소재, 컴팩트한 사이즈, 안정적인 4휠 구조로 요철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이동이 편리한 포뮬러 1004 레더 롤링 수트케이스. **벨루티** ❷ 신비로운 보랏빛 컬러, 세로 55cm, 가로 35cm, 폭 22cm의 컴팩트한 사이즈, 최고급 악어가죽으로 디테일을 살린 포뮬러 1004 엘리게이터 레더 롤링 수트케이스. **벨루티** ❸ 3단계 인체공학적 높이 조절 핸들, 편안한 가죽 핸들, 셔브런 패턴의 지퍼형 수납칸, 다방향 회전 무소음 4휠이 장착된 펠레 테스타™ 블루 캐빈 트롤리. **에르메네질도 제냐**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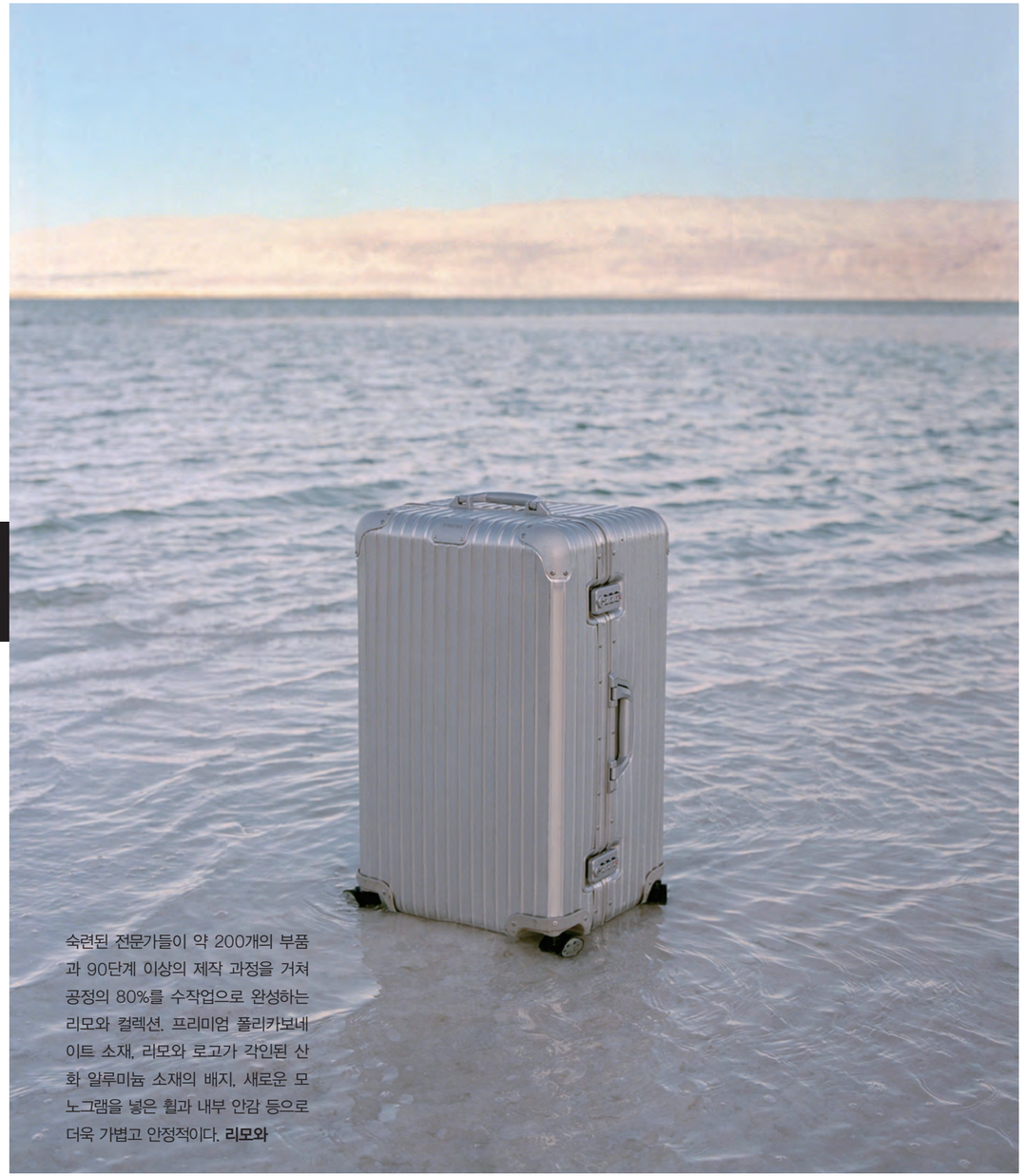
❸

❹

❹ 최고급 알루미늄 소재에 유니크한 쉘 디자인, 벨팅 레더로 만든 측면의 트리밍 장식까지 모던하면서 세련된 매력까지 장착한 7R 마스터 컬렉션. **하트만** ❺ 120년 전통의 영국 럭셔리 슈트케이스 브랜드 '글로브트로터'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빈티지하면서 고급스러운 GG 수프림 패턴의 트롤리. **구찌** ❻ 가볍고 견고한 X-브레이스 45®(X-Brace 45®) 핸들 시스템, 듀얼 스피닝 4휠 구조, 버튼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스냅 잠금장치가 특징인 19디그리 알루미늄 컬렉션. **투미**

❺

❻



숙련된 전문가들이 약 200개의 부품과 90단계 이상의 제작 과정을 거쳐 공정의 80%를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리모와 컬렉션. 프리미엄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리모와 로고가 각인된 산화 알루미늄 소재의 배지, 새로운 모노그램을 넣은 휠과 내부 안감 등으로 더욱 가볍고 안정적이다. **리모와**

오드리 헵번, 티파니, 그리고 뉴욕 5번가

EVER - SHINING STARS

영원을 결정짓는 순간이 있다. 지방시의 블랙 미니드레스를 입고 크루아상를 문 채 5번가의 티파니 매장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오드리 헵번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티파니, 그리고 뉴욕 5번가를 설명해주는 가장 근사한 형용이다.

에디터 임지영

홀리로 분한 오드리 헵번이 올림 머리에 진주 목걸이, 블랙 미니드레스를 세련되게 차려 입고 보석 가게 티파니의 쇼윈도 앞에 선다. 영락없는 파티복 차림이다. 긴 벨벳 장갑을 낀 손에는 크루아상과 커피가 들려 있다. 쇼윈도의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에 경외의 시선을 보내는 그녀의 눈빛 또한 선글라스 너머로 영롱하게 빛난다. 그녀에게 티파니의 보석은 열렬히 원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츠비의 '초록빛' 같은 존재다. 홀리는 우울할 때마다 택시를 잡아타고 티파니로 달려온다. 티파니는 홀리에게 그녀가 꿈꿔온 모든 환상을 응집해 보여주는 꿈의 공간이자 그녀의 불안을 환한 빛으로 달래주는 안식처이다. 1961년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이 개봉되었을 때, 영화만큼이나 화제가 된 건 영화 속 오드리 헵번의 패션이었다. 지방시의 블랙 미니드레스와 클래식한 선글라스, 수 겹이 레이어드 된 진주 목걸이는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렸다. 오드리 헵번을 세계적 스타로 만든 이 작품은 뉴욕 5번가에 있는 보석상 티파니 또한 세계적인 상점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뉴욕 여행에서 5번가, 그리고 티파니 매장이 빠지지 않는 이유다. 요즘도 본점 매장 앞은 기념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티파니 매장 앞을 서성이는 오드리 헵번이 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티파니가 지난해 말 뉴욕 본점 매장에 '블루 박스 카페'를 열었을 정도다.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인 에그블루로 채색된 카페는 센트럴파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4층에 자리하고 있다. 누구나 5번가와 57번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일상을 감상하며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덩달아 고급 브랜드들이 밀집해 뉴욕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알려져 있는 5번가도 명소로 등극했다. 영화 속 모두가 영원히 반짝이는 스타가 되었다. 헵번이 입었던 지방시의 검정 새틴 드레스는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8억 여 원에 낙찰됐고 헵번의 손때가 묻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대본은 이보다 더 높은 9억8천만원에 낙찰됐다. 일찍이 이런 공전의 히트를 예상했을까? 티파니 매장 앞에 서서 읊조리는 오드리 헵번의 대사는 실로 의미 심장하다. "티파니는 고요하고 당당해요. 내가 티파니와 같은 느낌의 장소를 찾을 수 있다면, 그땐 가구를 사고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Mary Evans / gettyimageskorea

그 한 장면으로
오드리 헵번은 물론,
티파니, 그리고
뉴욕 5번가까지
모두가
반짝이는
스타가 되었다.

1, 2
지금은 뉴욕에서 빠질 수 없는
관광명소가 된 5번가(Fifth Avenue).

3, 4
금융허브인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티파니앤코 본사 건물

5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한 장면

사막을 붉게 물들이는
아라비아 일출

약 4000피트(1.2㎞) 상공에서 경험하는 사막의 일출, 상상만 해도 각별하다. 두바이 사막 벌룬투어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된다. 미리 준비된 차량이 호텔에서 당신을 픽업한 다음, 도심에서 약 45분 거리의 사막 이륙지점에 내려준다. 안전교육을 듣고 공기를 데워 엔벨로프(풍선 부분)를 띄우는 것을 보노라면 조금씩 설레기 시작한다. 열기구가 서서히 떠오르고, 1시간 가량의 비행이 시작된다. 슬슬 수평선이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이내 사막 모래언덕 너머 하자르(Hajar) 산맥 뒤로 아라비아 태양이 떠오른다. 당신 옆에는 숙련된 매 조련사가 타고 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인 송골매(Peregrine Falcon)가 열기구 주변을 360° 파노라마로 비행한다. 열기구가 착륙하면 1950년대 빈티지 랜드로버를 타고 베두인 캠프로 이동한다. 훈제연어와 캐비어, 신선한 과일 등으로 차려낸 풍성한 아침 식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특별한 아침이다.

TIP

온라인 예약은 최소 11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일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프로모션 코드: FREETSHIRT) 100% 오가닉 코튼으로 제작한 25달러 상당의 기념 티셔츠를 제공한다.

DAILY 9월 7일 ~ 5월 31일
DURATION 약 5시간 30분
TEL +971 4 440 9827
RESERVATION www.ballooning.ae

공중에서 즐기는
이색 레스토랑

상공 50m에서도 우아하게 호텔식 코스요리를 즐길 수 있는 강심장이라면 '디너인더스카이'를 경험해보길 권한다. 자리는 각 22석, 하루에 단 6번 진행된다. 탑승 시간 45분 전, 웨이팅 라운지에서 체크인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레스토랑이 크레인에 매달려 45~50m 상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조리를 시작하는 셰프의 손길도 바빠진다. 이따금 마술쇼나 미니콘서트가 벌어지기도 한다. 코스는 스타터와 메인코스, 디저트 총 3가지로 구성된다. 베지테리언 식단과 할랄푸드 옵션도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 리츠칼튼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음식 맛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 팜 주 메이라, 두바이 마리나, 버즈 알 아랍…. 레스토랑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며 두바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펼쳐낸다. 과연,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레스토랑 10'안에 꼽힐 만하다.

TIP

레스토랑에 입장 가능한 기준은 8세 이상, 키 120㎝ 이상, 몸무게 150㎏ 이하다. 매일 2번의 런치와 1번의 티 브레이크, 3번의 디너 중 시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DAILY _____ 홈페이지 확인
DURATION ____ 85~90분
TEL _____ +971 2 555 8178
RESERVATION _ https://dinnerinthesky.ae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단지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질 때가 있다. 잘 뽑아낸 우동가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집어 올릴 때처럼,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자를 때 혹은 버터향 가득한 크루아상을 한 입 가득 베어 물 때 우리는 불현듯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글. 사진 최갑수 (〈여행자가 만났던 사랑의 순간들〉의 저자)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먹는 것이다. 이십년 동안 여행작가로 살며 느낀 것이다. 이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듯 싶다. 우리는 카오야를 먹기 위해 베이징에 가고,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기꺼이 지갑을 연다. 여행은 어쩌면 먹는 게 반이다. 아니 전부일 수도 있다. 페루 리마는 전 세계 미식가들이 꼭 한 번 찾고 싶고 하는 곳이다. 전설적인 셰프 가스통 아쿠리오가 등장한 이후 페루 요리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데, 리마에는 이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수준 높은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다. 페루 정부 통계에 따르면, 페루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40%가 미식을 주제로 떠나온 여행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먹다가 죽어도 좋아'를 외치는 이라면 꼭 찾아야 할 도시가 바로 리마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페루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센트럴 Central

현재 페루 리마의 미식 열풍을 이끄는 인물은 비르힐리오 마르티네스다. 그의 레스토랑 센트럴은 페루 전통요리를 재해석해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 스타일을 가미한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인다. 이곳 메뉴의 독특한 점은 메뉴 옆에 작게 적혀 있는 '-20M'라는 글씨. 이는 음식의 재료가 생산된 고도를 말한다. 또 다른 메뉴에는 '3900M'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센트럴의 테이스팅 코스는 해저 20m부터 해발 3900m의 안데스 고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재료를 맛보게 해주는 셈이다. 그의 테이스팅 코스는 3시간 가까이 걸리고, 모두 16개 요리가 나온다. 플레이팅은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름답고 소믈리에가 권하는 와인 페어링도 완벽하다.

페루의 혼종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 마이도 Mido

미쓰하라 쓰마라 셰프가 운영하는 마이도는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요리를 낸다. 차가운 돌판 위에 질소로 얼린 레몬가루를 뿌린 세비체, 고추냉이 없이 소의 목 힘줄과 메추리알의 노른자를 올린 초밥 등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음식이지만 처음 맛보는 요리이기도 하다. 그는 그의 요리를 '닛케이 푸드'라 부르는데, 일본 스타일이 가미된 페루 요리라는 뜻이다. 페루 요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풍부한 원재료에 페루로 이민 온 세계 각국의 문화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마이도는 우리가 가진 요리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주는 동시에 지평을 넓혀주는 곳이기도 하다.

WELLNESS

건강과 젊음을 동시에 잡는
‘파워에이징’ 라이프스타일링

차움 파워에이징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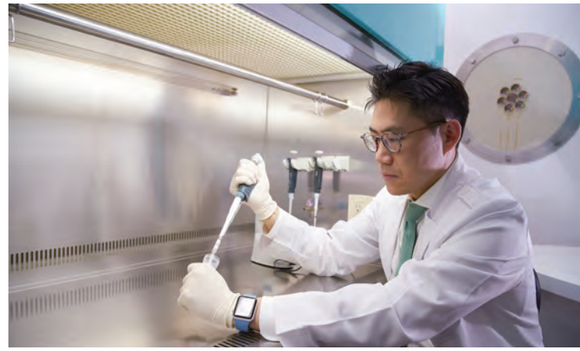
**건강과 질병 사이의 회색 지대에 놓인 현대인들.
차움 파워에이징클리닉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회색 지대를 관리해 건강은 물론,
젊음도 지킬 수 있는 파워에이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 검사를 통해 건강검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과 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약물요법· 영양요법· 명상 등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미래 질병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

과거 유전자 검사는 비싼 검사 비용과 제한적인 활용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전자 정보 해독 기술의 발전으로 저렴한 비용에 검사가 가능해졌고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개인 맞춤 의학 즉, 정밀 의료로 변화함에 따라 유전체 정보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와 의료 빅데이터를 종합하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해 조기 대처가 가능하고, 발병 시에도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유전자 검사방법
혈액이나 타액을 통한 간단한 유전자 채취

유전자 검사를 통한 헬스 체크
- 유전 질환 및 질병의 예측
- 비만을 유발하는 잘못된 식습관 교정
- 내게 꼭 맞는 맞춤 운동법 선별
- 약효가 높고 부작용 없는 치료제 선택



채혈만으로 8대 암을 조기 진단하는 스마트암 검사

과거에 암 종별로 각각 검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스마트암 검사’는 한 번의 채혈만으로 폐·간·위·대장·전립선·유방·췌장·난소암을 진단할 수 있다. 스마트암 검사는 암을 일으키는 50여 가지 지표들의 함량과 조합 등을 정밀하게 측정한 후 빅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암 발병 위험도를 산출해낸다. 간단한 검사 방법이지만 진단 정확도는 95%에 이른다.

면역력을 수치로 확인하는 NK세포검사

체내 면역 세포 중 가장 강력한 NK세포는 유일하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해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내부에서 발병하는 유해 질병을 막아준다. 차움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NK세포 활성도와 셀레늄·아연·비타민 D 등 면역력을 관장하는 영양소의 체내 농도를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면역력을 진단한다.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능력을 측정하는 항산화능력검사

‘항산화 능력 검사’는 인체의 배기가스로 불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체내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다하게 생성될 경우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 활성산소가 세포 구조에 손상을 초래, 결국 면역체계까지 망가뜨려 당뇨병, 동맥경화, 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 항산화 능력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항산화 능력을 검사해 면역력을 점검해 보자.

문의 02-3015-5300

KALPAK 마일리지 투어

숫자, 여행이 되다

항공권은 물론 호텔, 관광까지 모두 마일리지로!

KALPAK으로 떠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투어

마일리지 투어는 SKYPASS 마일리지만으로 추가 비용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상품입니다.
마법의 카드를 꺼내는 순간, 카드 속에서 잠자던 마일리지가 생생한 여행으로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KALPAK과 함께 포켓 속 잠자는 마일리지를 깨워보세요!
일본의 온천부터 동남아의 휴양지까지, 카드 속 숫자가 당신의 여행이 됩니다.

문의 02-726-5800

KALPAK COLLECTION

2019 SPRING

상자 밖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

'TMI'라는 신조어가 유행이 된 지 오래다. 'Too Much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넘쳐서 문제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의 습격에 시달린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넘치는 건 정보요, 잃어가는 건 다름 아닌 '나'다. 이럴 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출구가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는 여행이 아닐까? 여행은 한 개인의 성장담을 넘어 변화하는 세계의 초상이다. 희망을 품고 망망대해를 힘차게 헤쳐나가는 돛단배다.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다. 조금은 낯선 것들을 보고 접하며 만나는 진정한 나.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진다.

꿈 같은 자유여행의 시작

삶이 다르면 여행도 달라야 한다. 대한민국 상위 1%의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 맞춤형 여행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 문의 02. 726. 5800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팀

KALPAK 맞춤여행 견적 및 예약 절차

1. 여행 문의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들어보고 상담한다.
2. 여행 일정 및 견적
   여행 일정 및 견적은 상담 후 3일 이내에 안내받을 수 있다.
3. 견적서 등 상품 콘텐츠 확인 후 여행 진행 여부 확정
4. 비용 결제 및 여권 사본 제출
5. 여행 안내문 발송
   여행 관련 항공, 호텔, 차량 및 가이드 등 주요 진행사항 확정 후 안내문과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6. 해피콜 진행
   여행 종료 후 3일 이내에 여행 관련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이 시행된다.

KALPAK 멤버십 통합

2019년 2월 1일부로 KALPAK 멤버십이 한진관광 멤버십 내 〈KALPAK 회원〉 자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전환 방법**
  기존 KALPAK 회원으로 로그인 ▶ 멤버십 전환 신청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전환
- **한진관광 멤버십 내 〈KALPAK 회원〉 자격 요건**
  최근 3년 내 KALPAK 상품 1회 이상 이용 고객
  KALPAK 신규예약 확정 고객(요금 완납상태)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MM) 또는 모닝캄 프리미엄(MP) 회원
- **KALPAK 멤버십 혜택**
  구매한 KALPAK 상품가의 2%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연간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 제공
  맞춤형 여행 컨설팅 제공 / 멤버십 매거진 KALPAK Class 정기 우송
  이용 금액에 따라 제주 생수 무료 배송 / 항공권 구매 시 수수료 면제

여유 만끽 여행 단거리(일본, 중국)

가까운 거리, 짧은 일정으로 떠나는 '여유 만끽'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더 테라스 클럽

오키나와 The Terrace Club At Busena 자유 4일

일년 내내 따뜻해 언제나 포근한 여행지가 되어주는 오키나와.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The Terrace Club At Busena만큼 완벽한 리조트는 없다. 성인만 투숙 가능한 리조트에서 오키나와의 푸르고 맑은 바다와 아열대 자연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다.

* 3연박시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석식 1회 제공,
1박1인 1000엔의 호텔 크레딧 제공 (담당자 문의),
인천공항 차상위 카운터 체크-인 우대 서비스 제공

일정 오키나와(3) / **가격** ₩ 1,612,000~
문의 02-726-5710

카이 츠가루 료칸

아오모리 카이 츠가루 료칸 자유 3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일본 내 '온천100선'에 꼽힐 만큼 유명한 온천 지대인 아오모리에서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카이 츠가루 료칸에 묵으며 일본 온천 문화의 정수를 맛보는 여행. 1일차에는 공항에서 료칸까지 편도 택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 인천공항 차상위 카운터 체크-인 우대 서비스 제공

일정 아오모리(2) / **가격** ₩ 1,409,600~
문의 02-726-5708

홍콩 로즈우드 호텔

[신규오픈/룸업그레이드] 홍콩 로즈우드(Rosewood) 자유 3일

올 3월 홍콩에 오픈한 럭셔리 호텔 체인 로즈우드 홍콩은 구룡반도, 빅토리아 하버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침사추이에 위치해 있다. 미슐랭 레스토랑 등 총 8개의 레스토랑 및 바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버 전망의 객실로 1단계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일정 홍콩(2) / **가격** ₩1,259,600~ / **문의** 02-726-5715

상하이 더 랭함 호텔

상하이 더 랭함(The Langham) 자유 3일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어 동양의 '샹젤리제'로 불리는 신티엔디에 2010년 오픈한 상하이 더 랭함은 럭셔리 몰과 앤티크 레스토랑, 노천 카페 등이 공존하는 곳에 위치, 쇼핑·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호텔이다. 중국 부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일정 상하이(2) / **가격** ₩759,600~ / **문의** 02-726-5715

오감 만족 여행 중거리 (동남아시아, 괌, 하와이, 오세아니아)

이국적인 풍경 속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오감 만족'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낭 포시즌스 리조트

[마블마운틴–참 박물관 일일투어 영어가이드] 다낭 포시즌 (Four Seasons) 5일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 '하마이 해변' 인근에 위치한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에서 쉬고, 고대 베트남의 참파 왕국을 만날 수 있는 '참 박물관', 다낭의 상징인 '마블 마운틴'을 즐기는 여행이다. 현지 영어가이드와 단독 차량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일정 다낭(3)–기내(1) / **가격** ₩ 3,000,000~/
문의 02–726–5705

나트랑 아만노이(Amanoi) 자유 5일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언덕을 뜻하는 '아만노이' 리조트는 신비롭고 동양적인 인테리어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리조트의 객실은 물론 본관, 바, 레스토랑에서는 빈하이 베이의 탁 트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각각의 객실은 완벽한 프라이버시는 물론, 평화로운 휴식을 보장한다.

일정 나트랑(3)–기내(1) / **가격** ₩3,650,000~
문의 02–726–5705

족자카르타 아만지우(Amanjiwo) 자유 6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불교 사원 보로부두르에 둘러싸여 신비로운 영혼의 평화를 선사하는 아만지우. 더없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의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동시에, 아만지우가 마련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통해 보로부두르의 고즈넉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일정 자카르타(1)–족자카르타(3)–자카르타–기내(1)
가격 ₩3,274,000~ / **문의** 02–726–5706

[프레스티지 탑승/애프터눈티제공] 방콕 페닌슐라(Peninsula) 자유 5일

방콕을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 강가에 자리 잡은 페닌슐라는 태국의 고전적 아름다움과 방콕 특유의 문화가 어우러진 호텔로 전 객실이 리버뷰로 꾸며져 있다. 넓고 편안한 스위트 객실에서 감상하는 방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세계적 명성의 The Lobby의 애프터눈 티가 특별한 휴식을 약속한다.

일정 방콕(3)–기내(1) / **가격** ₩ 3,000,000~
문의 02–726–5707

The Lobby 애프터눈 티

오아후 포시즌스 리조트

[리조트 크레딧 제공] 라나이 + 오아후 포시즌 자유 6일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급' 하와이 여행. 오아후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오아후 포시즌스와 라나이 포시즌스에서 숙박하며, 오아후 포시즌스는 박 당 객실 당 리조트 크레딧 $50가, 라나이 포시즌스는 공항–리조트 간 셔틀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상 낙원 오아후와 라나이에서 머무는 시간을 즐겁게 해준다.

일정 오아후(경유)–라나이(2)–오아후(2)–기내(1)
가격 ₩3,681,200~ / **문의** 02–726–5715

마우이 페어몬트(Fairmont) 5일

2015년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재탄생한 마우이 페어몬트는 전 객실을 스위트로 운영하는 환상적인 오션 뷰의 리조트다. 총 3개의 수영장 및 1개의 스파를 보유하고 있어 리조트 내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하다.

일정 오아후(경유)–마우이(3)–오아후(경유)–기내(1)
가격 ₩3,131,200~ / **문의** 02–726–5715

괌 두짓타니(Dusit Thani), 클럽룸 자유 4일/5일

투몬 비치에 자리한 두짓타니 괌은 전통 타이 양식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계되어 기존 괌의 호텔들과는 차별화된 스타일을 자랑하는 럭셔리 호텔이다. 맑은 물과 깨끗한 해변, 푸르른 열대 정원에 둘러싸인 두짓타니 괌의 전 객실에서는 괌의 이국적인 풍광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일정 괌(3/4) / 가격 ₩1,600,000~
문의 02–726–5705

[2인 출발] 호주 시드니, 골드코스트 6일

호주의 도시적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드니와 청춘들이 모여 황금해변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서퍼들의 천국' 골드코스트 두 곳을 모두 볼 수 있는 특별한 패키지. 와이너리 방문과 골드코스트 상공을 누비는 헬기투어, 호주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블루마운틴 관광, 여기에 골드코스트 베르사체 호텔과 시드니 파크 하얏트 숙박 등이 퀄리티 있는 여행을 완성한다.

일정 기내(1)–브리즈번–골드코스트(2)–시드니(2)
가격 ₩7,731,200~ / **문의** 02–726–5706

시드니의 야경

감성 충만 여행 장거리 (유럽, 아메리카, 중남미)

느긋한 일정으로 색다른 문화를 접하고 공연을 즐기는 '감성 충만'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타 아만기리 리조트

[프레스티지 탑승] 유타 아만기리(Amangiri) 자유 7일

'세계 최고'라는 수식을 놓치지 않는 NO.1 럭셔리 리조트, AMAN에서 바라보는 사막은 우리가 지금껏 접하지 못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랜드 캐니언 내 캐니언 포인트의 웅장함과 장대함을 느낄 수 있으며 사막 한 가운데에 자리한 최고급 럭셔리 리조트에서의 휴식을 200% 즐길 수 있다.

일정 라스베이거스(1)–캐니언 포인트(아만기리)(3)–기내(2)
가격 ₩9,700,000~ / **문의** 02–726–5715

캐나다 로키 마운티니어

[2인 출발] 로키 마운티니어 9일

캐나다 로키를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럭셔리 관광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아닐까? 그 열차에 앉아 탁 트인 유리창을 통해 로키의 아름다운 절경을 구석구석 즐기는 '씨닉(scenic)' 여행이다. Gold Leaf를 이용, 돔으로 된 2층 좌석에서 전경 전체를 감상하는 KALPAK만의 프리미엄을 누려보자.

일정 밴쿠버(1)–캠룹(1)–자스퍼(2)–레이크루이스(1)–밴프(1)–캘거리(1)–기내(1)
가격 ₩12,500,000~ / **문의** 02–726–5715

[비즈니스 탑승] 남미 핵심 일주 4개국 13일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을 방문하는 여행으로, 중남미의 핵심 지역만 알차게 골라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다. 역사를 담은 유적에서부터 장엄한 자연에 이르기까지 두루 경험이 가능하며 전 일정 비즈니스석 탑승으로 최고의 편안함을 보장한다.

출발 2019년 6월 21일(금) 단 1회
일정 프랑크푸르트(경유) – 상파울로(경유) – 리오데자네이로 (1) – 이과수 (2) – 부에노스아이레스(1) – 산티아고(1)–리마(1) – 우루밤바(2) – 리마(1) – 로스앤젤레스(경유)
가격 ₩21,800,000~ / **문의** 02–726–5715

[전문가 동행]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 레겐스부르크 & 베로나 음악제 8일

세계적인 음악 축제, 공연들만 모아 둘러보고 경험하는 낭만적인 클래식 뮤직투어. 음악 전문가 유정우 선생님이 여행에 동행, 공연관련 강좌를 진행한다. 오텔로, 투란토르 등 총 4회의 오페라, 1회의 가곡회, 나스 카우프만 독창회 1회 등 주옥 같은 공연 감상 기회도 주어진다. 가슴을 울리는 클래식의 감동에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연합체인 Leading Hotels가 격조를 더해준다.

출발 7월 14일(일) 단 1회
일정 프랑크푸르크(4)–레겐스부르크–프랑크푸르크(1)–베로나(2)–기내(1)
가격 ₩17,500,000~ / **문의** 02-726-5704

베니스 바젤 아트투어

[전문가 동행] 2019 베니스 바젤 아트투어 9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한 미술평론가 정준모 교수가 동행할 뿐 아니라 미술관련 강좌도 진행하는 '아트투어'.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연합체인 Leading Hotels 및 기타 럭셔리 호텔에 숙박하며, 일정에 세계적인 미술제인 베니스 비엔날레 참석이 포함되어 특별함을 더한다. 총 6곳의 시립미술관, 아트페어와 취리히 현대 미술관 등 총 4개의 미술관을 방문한다.

출발 6월 8일(토) 단 1회
일정 로마/베니스(3)–바젤(2)–취리히(2)–기내(1)
가격 ₩14,533,600~ / **문의** 02–726–5709

그리스 산토리니

전세기라 더욱 특별한 여행 #1

[4인 출발] [전세기 프레스티지석 탑승] 코발트블루빛 신들의 땅, 그리스 일주 9일

대한항공 아테네 전세기 직항편 프레스티지석을 타고 떠나는 초특급 그리스 여행! 아크로폴리스, 포세이돈신전, 올림피아 유적지 등 세계사 책으로만 접했던 핵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으며, 엽서 속 그림같은 산토리니에서는 자유 일정이 주어진다. 신들이 부럽지 않은 Leading World Hotel 그룹, Luxury Collection Hotel 등에서의 스테이도 감동을 더해준다.

출발 4월 26일 / 5월 3일 / 5월 10일 / 5월 17일 총 4회
일정 수니온곶/아테네(2)–델피–칼리니(1)–올림피아–미케네–나프플리온(2)–고린도–산토리니(2)–아테네(경유)–기내(1)
가격 ₩18,000,000~ / **문의** 02–726–5704

고풍스러운 남프랑스

전세기라 더욱 특별한 여행 #2

[4인출발]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고흐부터 샤갈까지 거장들의 감각, 남프랑스 일주 9일

대한항공 마르세유 전세기 직항편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해 창조적 에너지가 샘솟는 남 프랑스의 작은 마을 및 도시들을 두루 여행할 수 있는 기회. 그곳에서 마주치는 고흐, 샤갈, 마티스의 흔적은 특별하고 소중하기만 하다.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연합체인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및 럭셔리 호텔에서 보내는 밤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만큼이나 황홀하다.

출발 5월 16일(목) 단 1회
일정 마르세유/아비뇽(2)–방스(2)–생장캅페라(1)–칸느(2)–마르세유–기내(1)
가격 ₩20,800,000~ / **문의** 02–726–5709

제주의 물 중에서도
귀한 물을 찾아 드시는 분들께만 찾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물_한진제주퓨어워터

주 문 1544-4060
jejuwater.com
m.jejuwater.com

한정된 양만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
누구나 만나는 흔한 물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집 앞까지 특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www.koreanair.com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졌습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4월 12일 보스턴 신규 취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미국의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GTON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